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6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7일(음력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은 10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참석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한국불교 새 백년 도약"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서
50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축하
네팔·사노위에 자비나눔 실천

선명상, '국민 마음운동' 확산 선언
청정 승가 구현 · 교구 소통 약속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새 도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연임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쌓은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를 이끌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스님은 "제38대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지난 4년이 종단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상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면서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지만 불안과 외로움, 갈등과 계층 간 대립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진우 스님은 이 같은 시대의 해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꼽으며 '선명상'을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님은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제38대 집행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도 줄고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갈 힘도 커진다"며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조계종이 그 길에 앞장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한 자비 실천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와 이웃, 사회와 국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며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수행자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를 만드는 데도 힘 쏟는다. 출가에서 교육과 수행, 전법과 복지,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수행자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우 스님은 "한 분 한 분의 수행자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청정승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교구와의 소통을 넓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한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진우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인류의 자산"이라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며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고, 해야 할 일에 물러서지 않겠다. 그 길에 사부대중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대홍수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 주한 네팔 대사대리에게 10만달러(약 1억3623만원)를 전달했다. 또 사회적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활동을 이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에게도 1억원을 지원하며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해 취임의 의미를 더했다.

2면에 계속

제19대 종회 후보 114명

중앙선관위, 10월 1일 자격심사
8개 본사 무투표…사실상 당선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 선거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117명 중 114명이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교구본사는 선출 정원과 후보자 수가 같아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10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8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4개 교구에서 51명을 선출하는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84명이 등록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에 23명, 10명을 선출하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는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원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해인사 교구에 출마한 진우 스님은 현재 공권정지 징계 중이고 미등록 사설사암 운영 사실이 확인돼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통도사 교구 보각 스님은 2025년도 분담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직능대표 후보자 심사에서는 복지 분야에 등록했던 불갑사 덕상 스님이 후보를 사퇴했고, 나머지 22명 전원은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돼 후보로 등록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도 모두 자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직선직 82명, 직능대표 22명, 비구니 10명 등 총 11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8개 교구본사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0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후보자 명단 2면〉

임은호 기자



“국민 마음 평안으로 사회 화합 이루길”

1면에서 이어짐

성파 대종사 “화합으로 불교 중흥”
“어려운 이웃 길잡이 역할” 기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성파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단 안정을 이루어 내었듯 종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여법하게 화합해 불교 중흥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 공덕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종단을 구성하는 수승한 원력과 역량을 갖춘 대중들이 모두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했다. 또 “오늘 복된 인연을 함께한 종도들은 종단이 가지고 있는 수승한 수행 풍토와 여법한 전통을 소중히 생각해 이사가 화합하고, 신심 있는 불자와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감동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오래도록 이 땅에 부처님 법륜이 구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을 축하하는 불교계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오늘날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온 경험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시대를 읽는 안목과 혜안을 지닌 진우 스님이 조계종단과 한국 불교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안겨주는 등불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스님이 그간 보여준 담대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불교계 내부 화합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상생과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승가와 재가가 서로 존중하는 종단이 되길 발원했다.

이웃종교계에서도 종교 간 교류 증진을 통한 화합과 상생의 가치 확산에 기대를 전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 천도교도 평화와 상생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는 “조계종이 국민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갈등 속에서는 화쟁의 정신으로 화합을 열며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불교가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명상 전통과 아픔에 서로 공감하는 자비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온기가 돼 줬다”며 “정부 역시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모두가 화합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축하 인사에 앞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을 대표해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김유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정리해고 후 12년 만에 복직한 김승화 전 KTX 승무지부장이 진우 스님에게 축하 꽃을 전달했다.

끝으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국민의 평안을 지키는 한국불교는 국민의 마음 안보를 위해 오직 수행의 공덕으로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길을 넓혀 가겠다”며 “공의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원동력이 되며 공감으로 세상과 함께할 것”을 기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명단

교구	법명	현직
직할	본오(탄보)	조계사 부주지
	상원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현민	호압사 주지
	탄하	청룡사 주지
	본연	현성정사 주지
	주경	제18대 중앙종회의원
	관태	호국지장사 총무
용주사	법진	백운사 주지
	현담	심복사 주지
	탄대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덕운	석남사 주지
	호진	조계사 호법국장
신흥사	대현	화암사 주지
	삼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월정사	해량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효림	전 삼화사 주지
	삼혜	법흥사 주지
법주사	석중	제18대 중앙종회의원
	각연	용화사 주지
	법원	소재사 주지
	현우	영국사 주지
	덕현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마곡사	제민	전 적석사 주지
	종봉	관촉사 주지
	대륜	쌍계사 주지
	태진	태고사 주지
수덕사	우봉	화계사 주지
	수암	영탑사 회주
수덕사	허정	전 불학연구소장
	정경	간월암 주지
직지사	자성	용문사 주지
	진웅	직지성보박물관장
동화사	선안	임휴사 주지
	명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덕유	전 호법부 조사국장
	혜범	송림사 주지
은해사	세림	덕사 주지
	호암	인각사 주지
	선웅	선광사 주지
불국사	정수	불국사복지재단 상임이사
	성주	오어사 주지
	각천	전 불국사 호법국장
	성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심담	마하연 주지
해인사	일규	미륵사 주지
	종인	해인사 고불암 감원
	응기	보국사 주지
	향록	송학사 주지
쌍계사	능원	낙가사 회주
	각림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현담	석왕사 주지
범어사	도명	여여정사 주지
	담산	전 총무원 총무국장
통도사	보화	월봉사 주지
	정무	용궁사 주지
	혜원	해남사 주지
고운사	태원	봉황사 한주
	도륜	대원사 주지
	혜오	보덕관음사 주지
	범종	관흥사 주지
금산사	덕림	관음사 주지
	창엄	죽림정사 주지
	응묵	영화사 주지
백양사	덕유	용흥사 주지
	성진	성관사 주지
	무선	전국선원수좌회 호법단장
화엄사	연규	향일암 주지
	우경	사성암 주지
송광사	시공	만경사 주지
	일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대흥사	설도	백련사 주지
	향문	미황사 주지
관음사	도윤	관음사
	선화	제석사 주지
	자경	보현사 주지
	도성	법화사 주지
	월공	경흥사 한주
	향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선운사	동산	상원사 주지
	재안	내소사 주지
봉선사	보관	수국사 주지
	성우	봉선사 대중
직능	법성	신륵사 주지
	경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진화	증심사 주지
직능	서봉	불교중앙박물관장
	선지	죽림사 주지
	진각	표충사 주지
	법륜	묘적사 주지
	탄웅	적조사 주지
	진허	능가사 주지
	현무	직할 학도암 주지
	효명	혜원정사 회주
	성행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법주	완도 신흥사 주지
	영일	정광고등학교 교장
	정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도림	장안사 주지
	무경	안심사 주지
	각진	봉은사 부주지
	향성	백담사 주지
	원충	화광선원 주지
	성화	장안사 주지
	탄원	보경사 주지
비구니	정관	소림사 주지
	진상	봉녕사 주지
	법해	진관사 주지
	설해	평창 부석사 주지
	은광	운문사 주지
	주석	대운사 주지
	금해	관음선원 주지
	혜능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 관장
	서원	구미 대둔사 주지
	수경	휴휴정사 주지

천태종 제18대 종의회의장에 용구 스님

제133차 임시 종의회서 선출
26년도 추경예산 307억여 원



천태종 제18대 종의회의장에 용구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천태종 종의회는 9월 18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33차 임시 종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용구 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용구 스님의 임기는 제18대 종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9년 1월 초까지다.

신임 종의회의장 용구 스님은 1977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 1982년 득도했고 법계는 2급 종사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부·사회부·규정부, 17~18대 종의회 의원, 19대 감사원장, 사찰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형위원, 상벌위원회 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종의회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학교법인 금강대 등 산하기관의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이 307억166만1000원으로 확정됐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영산재와 락이 만난다

10월 18일 광화문광장서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를 마련한다.

태고종은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태고종 영산재 및 태고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영산재는 불교의 전통 의례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이다. 태고종은 매년 영산재를 통해 전통의례의 맥을 잇는 한편,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함께 마련해 왔다.

올해 영산재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태고종은 영산재의 전통 의식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영산재가 지닌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태고락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극락도 ROCK이다’를 주제로, 대중음악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함께하는 열린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연에는 노브레인, 체리필터, 럼블피쉬, 크랙샷 등이 출연해 광화문광장 특설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총지종 교도들 “지계 보살행 서원”

9월 29~30일, 총지대화합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록경 정사)이 교도들의 화합을 다지고 진언행자로서 계를 지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총지종은 9월 29~30일 단양 소노벨 그랜드볼룸에서 교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지대화합법회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교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곧 총지종의 역사이며, 그 마음과 원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보듬는 따뜻한 총지종을 만들어 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2026년 임진왜란 의승·의병 합동추모재

『충절의 고장, 영천 – 국난극복의 정신을 다시 새기다』
‘경북의 숨겨진 보물’ 영천시는 동방성리학의 종조 포은 선생의 학풍과 전국 최고 수준의 강학소들이 산재한, 정신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천은 국난 극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북 10개 지역 의병이 연합해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육지 최초 대규모 승리를 이루었고, 은해사 승려 200명도 참여해 공동체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의 명량대첩에 비견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백사별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한말 산남의진, 6.25 전쟁의 영천대첩까지, 영천은 두 차례 ‘대첩’을 이룬 국난극복의 상징 도시입니다.
이번 ‘의승 및 의병 합동추모제’는 영천이 지닌 충절과 화합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26년 10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문의 054)355-3318 (종무소)

주최 : 조계종 10교구 은해사 주관 : BTN불교TV 후원 : 경상북도, 영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센터, 운영 본격화

선명상 중앙본부, 9월 29일 간담회
가을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 공개
나옹선사 순례, 과학·호흡 캠프 등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지난 7월 22일 개원한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전경.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이하 선명상 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10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선명상 중앙본부는 9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의 가을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7월 22일 개원한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기존 영덕 인문힐링센터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다. 선명상 중앙본부가 영덕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불국사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지역 선명상 치유센터다.

센터는 영덕 출신인 나옹왕사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고, 선명상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전통문화·웰니스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의 첫 프로그램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나옹선사 성지순례 치유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나옹선사의 출가지인 문경 대승사 묘적암을 비롯해 깨달음을 얻은 양주 회암사, 열반에 든 여주 신륵사 등을 차례로 순례하며 선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10월 17일에는 '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호흡 치유 캠프'가 열린다. 박문호 박사가 명상과 뇌과학, 호흡의 관계를 주제로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10시간에 걸쳐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꿀포츠'로 알려진 성악가 김성록 씨와 함께하는 '치유 노래 명상 캠프'가 마련된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한 김성록 씨는 지난 7월 센터 개원식에서도 축가를 맡은 바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노래와 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신 치유를 돕는다.

주말에는 '선명상 스테이'가 상설 운영된다. 당일 프로그램부터 1박 2일, 최대 10일까지 체류하며 선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자연건강식을 함께 제공해 휴식과 치유를 돕는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 참가도 가능하다.

센터는 지역 웰니스 행사에도 참여한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 참가해 선명상 홍보 부스와 웰니스 푸드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선명상을 알리는 한편 사찰음식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성만제 조계종 미래본부 차장과 박희승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장이 참석해 센터의 설립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만제 차장은 "선명상 일상화 염원을 담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시설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간화선을 기반으로 선명상을 펼치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센터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휴식과 치유가 필요하다"며 "선명상과 호흡 명상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에 불교의 수행 전통을 접목해 선명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영덕 센터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 선명상을 알리고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www.ydwellness.org)서 확인 가능하다. 054-730-5820

칠백의총 순의제향, 승병·의병 함께 기렸다

9월 23일, 칠백의총 종용사
불교계 참석…불교의례 봉행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9월 23일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봉행됐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절한 승병과 의병의 넋을 기리는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9월 23일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봉행됐다.

국가유산청 칠백의총관리소가 마련한 이날 순의제향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칠백의사 후손과 불교계 스님,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종봉 스님(관촉사 주지)과 태고사 태진 스님, 인취사 태정 스님, 가산사 지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의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했다.

스님들은 유교식 전통 제례로 진행된 순의제향에 함께한 뒤 제향을 마치고 의총으로 이동해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넋을 기리는 불교의례를 봉행했다.

종봉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섰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공훈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해 왔다"며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역할과 희생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호국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칠백의총이 승병과 의병이 함께 나라를 지킨 호국의 현장임을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불교계가 동참한 의미를 짚으며 금산전투와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고 청주성을 탈환한 뒤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허당 영규 대사 제434주기 추모다례문화제'에는 특히 의병들의 후손들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원경 스님은 "앞으로 영규 대사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함께 순국하신 모든 분을 기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뜻을 더욱 승화시켜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반HC·선우HK, 불교 제례 보존 협력

9월 21일 다비·49재 보급 MOU
승려복지·불자 복지증진 기대



스님이 입적하면 다비로 마지막 길을 모시고,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은 사찰에서 49재를 봉행하는 불교의 제례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도반HC와 선우HK가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사업·보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승려노후복지와 불자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성진 스님)와 흥국생명 제례보험 전문 판매법인 ㈜선우HK(대표이사 박채원)는 9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9재 하늘소풍 제례종신보험' 및 '해탈다비보험'의 조계종 사찰 보급과 판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9재 하늘소풍 제례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후 제례를 봉행할 '사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유가족이 제례 비용과 절차로 인해 겪는 갈등을 방지하고, 고인을 사찰의 여법한 의식 속에서 평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해탈다비보험'은 전통 다비식이 처한 물리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의 장례 문화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평생 수행에만 정진해 온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법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반HC는 두 제도가 전국 조계종 사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할 방침이다.

도반HC 사장 성진 스님은 "사찰 단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종단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며 불교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청련사, 군포교 활성화 나선다

9월 21일, 쌍용여단과 MOU
상진 스님, 장병 위문금 전달



태고종 청련사(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가 육군 쌍용여단(부대장 최한수 대령)과 9월 21일 민군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장병들의 종교활동과 복지 증진, 정신전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부대는 청련사 요청 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또 부대 일정상 제한이 없을 경우, 파주 및 문산 지역 일대에서 진행하는 청련사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청련사는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부대에 분기별 위문금 및 위문품을 지원하는 한편 부대 종교시설인 무선사에 월 단위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종교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 부대 요청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상진 스님은 군부대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군법사의 역할을 강조한 스님은 "군법사들이 젊은 군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군법사들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최한수 부대장은 "오늘 인연이 최고의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마친 상진 스님은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파주=임은호 기자



나란다축제, '다시 내딛는 불교중흥'

11월 28일 동국대 일원서 개최
청소년·청년 중심 주체성 강화
진로엑스포·문화예술 경연 등
상월결사 순례체험도 11월 예정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는 9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간담회를 열고 11월 28일 개최하는 제18회 나란다축제의 주요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직 개편과 축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중단 위기로 축소 진행됐던 나란다축제가 청소년과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불교문화축제로 다시 도약한다. 교리와 진로, 문화예술, 수행체험을 한자리에 연결해 미래세대가 불교를 배우고 즐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담화 스님)는 9월 29일 서울 동국대서 간담회를 열고, 11월 28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8회 나란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직 개편과 축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조계종과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교육연합회와 상월결사가 주관, 군종특별교구·대학생불교연합회·동련·불교음악원·전국교법사단·좋은벗·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공동주관하며 뜻을 모았다.

나란다축제는 올해 '다시 내딛는 불교중흥의 한 걸음,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청소년을 축제의 주체로 세우고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미래세대 불교문화축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불자들은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 운영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내 손으로 빚은 꿈'을 주제로 기획회의와 워크숍에 참여한다.

전통문화체험 '내가 K다'에서는 △불교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상월선원 안거체험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등이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중·고등학생들이 불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교재와 문제은행을 별도로 제작해 사전 학습을 돕는다. 초등학생 대상 불교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사찰 어린이법회 등을 중심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른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안거체험'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28일 오전에는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출발해 남산 둘레길 약 2km를 걷는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순례체험이 진행된다.

'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학·진로 엑스포 꿈의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진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국대 입학도우미 'DREAMER'가 진학 상담과 집중 멘토링을 제공해 진학 설계를 돕는다.

문화예술 무대도 넓어진다.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에서는 K-Dance 경연대회, 해봉 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 어울림마당 등이 펼쳐진다. 특히 해봉 전통예술 국악 경연대회는 중·고등부를 신설해 기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군장병 부문 불교교리경시대회'도 다시 열린다. 11월 29일 군부대별로 진행, 청년의 참여율을 높힐 계획이다.

삼보사찰 순례도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순례는 2021년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진행된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길을 다시 걸으며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훈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생과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밀교 의례 복원 넘어 현대적 활용 모색

'밀교의례의 설행·전개' 학술대회
공양차제·만다라·관정 등 주제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9월 2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밀교의례의 원형을 살피는 데서 나아가 실제 설행을 위한 복원 가능성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은 9월 29일 서울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양차제, 만다라 작법, 관정, 호마, 불복장 등 밀교의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 밀교의례를 어떻게 연구·복원하고 실제 의례로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밀교의례의 구체적인 작법과 수행 구조, 전승 과정을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헌에 기록된 의례의 원형을 확인하는 한편, 밀교적 세계관과 수행의미를 분석해 향후 전통 의례의 복원과 실제 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덕대 혜안화 전수는 '밀교와 현교의 공양차제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교와 밀교의 공양 의례를 비교하며 밀교 공양차제의 특징과 수행적 의미를 살폈다.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인도후기밀교 의례집의 만달라 작법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만다라의 조성과 의례적 활용 과정을 분석하고 문헌 속 만다라 작법을 실제 의례의 관점에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성제 정사는 '혜과아사리와 밀교관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밀교의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를 발표한 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 연구원은 티베트 밀교의 호마의례를 중심으로 의례의 구성과 실제 설행 과정을 살피고 외적인 화염과 행자의 내면 관상이 결합하는 호마의 수행적 의미를 설명했다.

강대현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불탑, 불상, 불복장, 그리고 만다라'를 주제로 불복장과 만다라의 관계를 조명했다.

임은호 기자



청와대 직원들, 청년들에 '밥心' 나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9월 22일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에서 '청와대 자원봉사단 · 불자회와 함께하는 청년밥心'을 진행했다. 청와대 불자회(회장 강건작)와 청와대 자원봉사단(단장 전성환)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사찰식 명절음식과 송편을 직접 배식하고 함께 공양했다.

박지운 기자



생명나눔-별내동, 생명존중 문화 확산 MOU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8일 별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나눔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별내, 나눔으로 물들다'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이번 협약은 민 · 관 협력을 통해 별내동 지역의 복지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원행 스님

9월 30일, 임시이사회서 선출
"할머니 추모에 최선 다하겠다"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진안 금당사 회주·사진)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나눔의집은 9월 30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 1층 교육관에서 '2026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원행 스님은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권'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1년부터 18년간 나눔의집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할머님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린 스님은 "할머니들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되고, 고통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표이사 사의를 표한 세영 스님은 "35년 전 월주 스님이 나눔의집을 설립한 이후 많은 스님들이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기에 저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원행 스님께서는 총무원장도 역임하신 데 더해 유물 관련 전문 역량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잇는 것은 물론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영화 '귀향' 재개봉과 연계한 일본군'위안부' 추모사업과 추모비 설치 관련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안건도 처리했다.

이현희 기자

기자칼럼

제19대 중앙종회가 풀어야 할 과제

10월 15일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다수 교구본사에서 선출 정수를 넘어서는 후보가 등록해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중앙종회가 종단 안팎의 현안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풀어내느냐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종헌과 종법의 충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종사·명사 법계 품수 절차를 둘러싼 문제다.

지난해 11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품수 방식으로 바꾸는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종헌 제28조는 원로회의에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법계법 개정안과 종헌의 불일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올해 6월 법규위원회에 해당 법령의 종헌 위배 여부를 묻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규위원회는 7월 회의에서 종헌 위배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중앙종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계 기관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권고했다.

결국 공은 다시 중앙종회로 넘어왔다. 19대 중앙종회는 법계 품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법의 빈틈과 모순을 찾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개정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제18대 중앙종회에서 두 차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고도 의결되지 못했다.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문제인 동시에 비구니 승가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선언을 규정으로, 요구를 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낡은 규정은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81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열기를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바꾸는 책임이 새 중앙종회에 있다.



김내영 편집국 차장

올해의 포교사 강원지역단 강릉총괄 교정교화팀 **최상규**

묵묵히 20여 년 교정교화·지역봉사

2026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43년 교직생활하며 포교사 활동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청소하고, 반찬과 연탄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온 최상규(77)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20여 년 넘게 재소자들을 만나 교정교화 활동을 이어오며 포교에도 힘써온 그가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9월 12~13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제22회 팔관재계수계법회'에서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최 포교사는 43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2005년 제10기 포교사를 품수,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강릉군포교팀장과 강릉총괄팀장을 거쳐 제7대 강원지역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강원지역단 강릉총괄 교정교화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오랜 기간 이어온 활동 가운데 특히 비중을 둔 분야는 교정교화다. 최 포교사는 재소자들을 만날 때 경전을 설명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교정교화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장애인 가정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던 날이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한 장애인이 그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 한마디에 최 포교사는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봉사와 포교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어린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일찍 여읜 그는 조부모의 손에 성장했다. 월정사 신도였던 할머니는 손주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부처님께 기도했고, 생활 속에서 불살생을 실천했다.

"할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고기까지 끊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냇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하지 않았죠."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를 따라 사찰을 찾는 정도였지만, 청년이 되고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교를 가까이하게 됐다.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한 여러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

최 포교사가 평소 마음에 새기는 경구는 〈금강경〉의 모든 유위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처럼 덧없다는 가르침이다. 이 구절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현재의 일에 충실하되 집착은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포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총무원장상 수상이 그간 자신의 포교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박지운 기자

자연복원 1년, 고운사에 생명이 깃들다

9월 11일, 불교환경연대 등 5곳
모니터링 결과 공유·안내판 제막
야생동물 관측…멸종위기 생물도
"국가 차원 프로젝트 지원 필요"

의성 고운사=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9월 21일 열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1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지 등운 스님과 안동환경운동연합 김동수 대표가 자연복원 과정을 담은 안내판을 제막하는 모습.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자연복원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재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도살풀이춤.

지난해 가을 26종에 머물렀던 야생조류가 올해 봄 53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운사 사찰림이 산불 이후 생태계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연대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안동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생명다양성재단은 9월 21일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1년간 진행한 자연복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의성 산불로 고운사 사찰림249ha 가운데 97.6%인 243ha가 불탔지만, 고운사는 피해목을 일괄 벌채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대신 자연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는 자연복원 방식을 택했다. 의성 지역은 화산 지형으로 바위가 많고 토양층도 10~20cm 정도로 얕아,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기보다 자연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기념식에서 등운 스님은 "처음에는 까만 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재 사이로 한 뼘 정도의 새싹이 올라와 있었다"며 "위에 나무는 타버려도 뿌리는 살아 있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고 전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자연복원 과정을 담은 안내판 제막식과 생명을 축원하는 바라춤, 재난 기억의 설움을 풀어내는 도살풀이춤 공연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이후 템플관에서 1년간 관찰한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포유류 조사에서는 노루·고라니·담비·삵·오소리·너구리·족제비 등을 포함해 17종이 확인됐다. 특히 수달의 출현이 주목됐다. 수달은 약 8㎞ 떨어진 미천에서 물줄기를 따라 이동해 고운사 주변 하천과 저수지, 계곡에 자주 나타났다. 담비는 고운사 주변뿐 아니라 인근 수정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삵도 능선보다 산 아래 고운사 주변에 주로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현재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고 번식하는 개체들도 확인되고 있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 고운사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이 돌아올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조류 변화는 자연복원 과정에서 확인된 뚜렷한 진전 중 하나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 26종이었던 야생조류는 올해 봄 53종으로 늘었으며, 관찰 빈도도 가을철 200~400건 수준에서 약 1800건으로 증가했다. 직박구리·되지빠귀·소쩍새·쏙독새·청딱따구리·큰부리까마귀·호반새 등이 확인됐으며, 올빼미·팔색조·긴꼬리딱새·수리부엉이·원앙 등 법정 보호종도 출현했다.

특히 고사목은 산불 이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고사목에 곤충이 모이고 곤충을 먹는 새가 찾아오며, 딱따구리류가 만든 나무 구멍은 다른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소리만으로 자연 회복이 얼마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회복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도로에서 위험이 되는 나무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 접근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곤충 조사에서는 198종이 확인됐다. 자연복원지와 인공복원지 등에서 산불로 죽거나 약해진 나무를 먹이 자원으로 삼는 나무좀아과와 침엽수비단벌레 등이 다수 발견됐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도 확인됐다. 애기뿔소똥구리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가는 종으로, 배설물을 남기는 포유류 등 다른 생물의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임광묵 서울대 생명과학부 연구자는 "예상보다 높은 곤충 다양성과 개체수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가 향후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 회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기준선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산불 이후 생태계 회복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사·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소장은 "산불 이후 산림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자연복원 과정을 과학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는 대규모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며 "생태 분야 전문가과 시민들이 주체자로 참여해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와 연구기관들은 앞으로도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기고

고향사랑기부, 지역 살리는 보시

불교에서 보시(布施)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내어놓음으로써 나와 이웃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는 실천이다. 나의 작은 나눔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공덕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보시의 정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가는 지역, 지켜주고 싶은 공동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4년 만에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 2023년 650억원이던 모금액은 2025년 1515억원으로 늘었고, 기부 건수도 139만 1850건에 달했다. 그러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전체 기부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다. 이를 각 지방정부는 국가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늦거나 어려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교와 직접 만나는 사례도 있다.

경남 창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하나로 천년고찰 성주사의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산사에 머물며 예불과 공양, 산책, 스님과의 차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강원 동해에서도 무릉계곡에 자리한 삼화사의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다.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보내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해 사찰에 머물고 지역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게 한다. 기부금은 지역으로 가고, 답례품은 사람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들인다.

지난해 1515억원 모금…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
기부자에 템플스테이 기회…불교문화 접목 '기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졌지만, 기부자의 선택은 여전히 10만원 부근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모금액은 2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나 감소했다. 세액공제율만 조정한다고 기부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현재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면 모금액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여러 지방정부의 사례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보여준다. 2004년 이후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전남 광주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2024년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3000명 이상의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았다.

2025년 영남권 대형 산불 때에는 더욱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특별재난지역 8곳에 산불 발생 열흘 남짓 만에 사찰 역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의 많은 전통사찰은 수백 년, 때로는 천 년 넘게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공간이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더욱 다양하게 연결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교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화엄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하나가 곧 여럿과 연결되고, 여럿이 다시 하나를 이루는 세계다. 지역의 소멸도 어느 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회복 역시 그 지역만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부가 한 아이를 살리고, 한 마을을 지키며, 한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향해야 할 곳도 분명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나눔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각회 수석부회장)





38대 임기 시작…“시대 이끌 불교로 도약”

9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서 고불식
“공의 모아 공감, 공심으로 실천”
‘세상 평안 함께 여는 불교’ 현판도
37대 취임 이후 108배 정진 이어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을 부처님 전에 고하고 새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스님은 “공의와 공감, 공심으로 더욱 당당한 승가, 더욱 안정된 종단, 더욱 젊고 역동적인 한국불교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고불식’에는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부주지 탄보 스님, 이승현 신도총회장,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4년을 “승가와 재가가 하나 된 원력으로 종단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정을 넘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불교’로 도약해야 한다”며 제38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고 ‘교구가 살아 숨 쉬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종무기관은 더욱 효율적으로 혁신하고 교구와 지역 사찰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사부대중의 평등하게 참여하는 화합 종단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고불식’을 봉행하고 새 집행부의 시작을 알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사 1층에 현판을 제막하는 모습.

수행과 전법을 뒷받침할 승려복지와 교육체계 기반도 강화한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과 도제양성의 혁신을 통해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선명상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대를 이끄는 불교’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의 전통 선 수행을 ‘선명상’으로 대중화해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한국불교의 수행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펼쳐 정신문명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청년과 함께 불교의 미래를 만들고,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의 그늘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승가와 재가, 그리고 종무원 모두가 하나의 원력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이 가능하다”며 “저부터 더욱 낮추고 사부대중의 공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매일 아침 올리는 108배의 정진처럼 총무원장 소임 또한 수행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겸손하되 담대하게,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중흥의 길을 앞장서 걸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부처님 전에 헌향한 뒤 고불문을 통해서도 새 임기에 대한 원력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간절한 원력을 모아 스님들께서 오롯이 정진에만 전념하도록 승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참된 평안의 길을 걷게 하겠다”며 “한없이 몸을 낮추어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며 공감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이후 총무부장 정문 스님과 종무원 대표 김용구 종무차장, 김추연 종무원 조합 위원장,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이승현 신도총회장이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했다.

고불식을 마친 진우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청사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으로 이동해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불교’가 새겨진 현판을 제막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매일 108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37대 성과자료집…“한국불교 이정표”

4년간의 주요 종책·성과 담겨
문화유산 보존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 · 청년 세대에 손길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마음평안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집행부가 4년간 추진한 주요 종책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됐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성과자료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총무원 총무부장)’는 9월 23일 “2022년 9월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발자취를 담은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국가제도 개선 △사회소통·약자 지원 △전통문화 계승·불교문화 진흥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천년을 세우다 △포교혁신과 신행문화 △승가복지·교육 △국제교류 △조직 개편 등 9개 분야로 나눠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제37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출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로 제시했다. 특히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데 힘을 쏟았다.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했으며,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재난 현장에는 신속히 긴급재난구호단을 파견하고, 병마와 싸우는 어린 생명과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의 손길을 건넸다.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와 청년 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心)’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에 다가갔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제37대 집행부는 ‘전통사찰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법’ 등 8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며 사찰을 규제의 대상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는 주체로 재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유산관람료 전면 감면을 시행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민이 불교문화유산을 더욱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성보를 되찾는 노력도 이어졌다. 제37대 집행부는 성보 24건 40점을 환수하며 불교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와 역사적 정체성 회복에 기여했다.

선명상 대중화는 대표적인 종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선명상대회와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치유와 평안을 돕는 일상적 수행문화로 확산시켰다.

종단 운영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제37대 집행부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3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네팔 대홍수 피해에 자비 손길

전국 교구본사 · 단체 등 동참
“조속 복귀 위해 지원 지속”

대홍수로 고통받는 부처님 탄생지 네팔을 지원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정성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네팔의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며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인광 스님)는 9월 8일 3000만원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9월 22일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제22교구본사 대흥사(법상 스님)는 9월 29일 각각 3000만원씩,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도 같은 날 5000만원을 지원했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와 제19교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도 10월 1일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기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네팔 피해 상황에 대해 “도로 대부분이 유실되고 산악지대 지형으로 구조하기도 쉽지 않고, 피해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체대비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모든 인류가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본사에서 모아주신 성금이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9월 18일 1억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 모연 가운데 단일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일반 사찰과 승가단체의 동참도 이어졌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 스님)는 9월 8일 500만원을, 부산 해광사(주지 태공 스님)는 9월 15일 1000만원을, 여주 신륵사(주지 법성 스님)를 비롯한 제2교구말사 22곳은 9월 22일 35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학도암(주지 현무 스님)도 9월 28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 1000만원을 네팔 피해 복구를 위해 기탁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무영 스님)에서도 9월 28일 3000만원을 전하며 네팔의 조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9월 17일 3000만원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가 9월 29일 1000만원을,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 스님)가 9월 16일 3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10월 31일까지 네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희 기자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사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들,

전국 제방에서 수행과 전법에 진력하고 계신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길을 앞장서 열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까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외로움, 분노와 갈등은 커지고, 우리 사회는 진영과 세대, 계층의 대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문명의 발전만큼이나 정신문명의 발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바로 그 길을 밝혀왔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좋음과 싫음, 기쁨과 괴로움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마음을 운전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제38대 집행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선명상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군대에서, 종교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도 줄어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갈 힘도 커집니다.

둘째, 자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은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이웃, 사회와 국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 종단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라면 서로 더 많이 돕겠다고 경쟁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불국정토입니다.

셋째, 수행자가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겠습니다.

중생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이 바로 서야 합니다. 출가에서 교육과 수행, 전법과 복지,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생활과 노후를 걱정하기보다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분 한 분의 수행자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청정승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화합하되 멈추지 않고 개혁하겠습니다.

종단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교구와 소통하고 종도들의 뜻을 널리 듣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여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화합은 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유산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님과 불자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전승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자산입니다. 국가와 사회도 그 보존과 전승의 책임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더욱 철저히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열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70(2026)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함께한 첫걸음, 새로운 길을 열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10월 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참사 유가족, 산재 피해자 가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석해 진우 스님과 걸음을 함께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 아픔의 현장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를 향해, 제38대 집행부의 새출발이 시작됐다.

〈편집자 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새 도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1


2


3



5



7



8

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② 진우 스님이 취임법회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헌향하는 모습. ③ 김유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정리해고 후 12년 만에 복직한 김승화 전 KTX 승무지부장이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④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참석대중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⑥ 취임법회에는 종단 주요 스님들과 이웃종교 및 이웃종단 지도자,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⑦ 진우 스님은 대홍수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니르말 프라사드 바타라이 주한 네팔 대사대리에게 10만달러(약 1억3623만원)를 전달했다. ⑧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대활동을 이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에게도 1억원을 지원했다. ⑨ 불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진우 스님. ⑩ 부산BBS 불교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연꽃 피어오르리' 등 축가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9


4


6


10

AI시대, 정체성 위기…'제법무아'서 길을 찾다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섹션 1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콘퍼런스'가 9월 17~18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렸다. 국내외 석학과 명상 전문가 8명이 기술과학시대에서 선명상의 위치와 역할,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콘퍼런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사키 시즈카 교수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

사사키 교수, AI시대 불교 역할 조명
경쟁 벗어나 자기 단련 기쁨 알길
카파토스 교수, '마음의 본질' 발표
개별적 마음 · 보편적 마음 관계 조명

9월 17일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섹션1은 '기술과학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해외 석학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사사키 시즈카 일본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를 통해 행복의 기준을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사키 교수는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로 인간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 상실을 꼽았다. 그림 실력을 쌓아온 일러스트레이터가 AI의 등장으로 자신의 노력과 직업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든 사사키 교수는 일자리 상실이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믿음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찾았다. 사사키 교수는 "'아(我)'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아'의 우월성이 부정당했을 때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아'에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해 이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시대를 넘어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제법무아'를 제시했다. 인간의 본질을 여러 요소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으로 보는 '제법무아'를 통해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사키 교수는 "AI와 인간의 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다. 그럴 때 '제법무아'를 설파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AI를 이기든 AI에게 지든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납득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기쁨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자기 단련의 기쁨"이라는 게 사사키 교수의 주장이다.

평소 자신에게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AI의 깨달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사사키 교수는 AI가 탐욕·분노·어리석음을 지니지 않는다는 자신의 관점을 근거로 "AI는 이미 깨달았다"라고 답했다. 반면 인간은 깨달음과는 먼 존재임을 상기하며 "원래 열악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든 보통의 위치로 가기 위한 길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AI와의 경쟁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사사키 교수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 AI의 힘을 빌리라"며 "AI와 2인 3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AI 사회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하는 방법"라고 밝혔다.

앞서 미나스 카파토스 미국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음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양자물리학과 고대 철학의 관점에서 살폈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예술·수학·음악·과학·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관여하지만,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음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것인가", "마음에는 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탐구 대상을 제시했다.

양자역학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우주에 대한 양자적 관점에서 마음은 관찰되는 것에 '이해된 실재'라는 성격을 부여한다"고 밝힌 카파토스 교수는 '개별적 마음'은 바다의 물방울에, '보편적 마음'은 바다에 비유하며 "모든 개별적 마음이 보편적 마음을 이루며 그 보편적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보편적 마음의 진리는 우리 것이 된다. 보편적 마음의 본성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적 본성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은 보편적 마음에서 나와 보편적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는 보편적 마음"이라고 밝혔다.

"간화선, 답 모으는 공부 아니다"

사사키 교수, AI시대 불교 역할 조명
경쟁 벗어나 자기 단련 기쁨 알길
카파토스 교수, '마음의 본질' 발표
개별적 마음 · 보편적 마음 관계 조명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9월 17일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에서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명상 콘퍼런스 9월 17~18일 개최
수불 스님, 기조강연으로 문 열어
AI시대 화두 참구 필요성 강조해

"간화선은 답을 모으는 공부가 아닙니다. 화두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라는 견고한 상자, '지식'이라는 오만한 틀을 깨부수는 공부입니다. 위대한 자아 해체 작업은 최첨단 AI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선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장엄하게 화두를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AI시대에 자기 존재의 근원을 묻는 간화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9월 17~18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수불 스님은 AI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돕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오늘 우리는 AI가 무수한 정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간화선은 답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답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놈'을 돌이켜보는 공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두에는 개념적인 정답이 없다"면서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두 줄의 언어나 정답 따위로 결코 요약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공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두를 정답이 숨겨진 문제처럼 접근하는 태도 역시 경계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뭣고', '뜰 앞의 잣나무' 등의 화두를 문자 해석의 문제라고 접근하며 깊은 뜻이 담긴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게 수불 스님의 지적이다.

수불 스님은 "화두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는 나의 가짜 주체이자 분별하는 자의식을 끝까지 몰아붙여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두를 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오만한 마음이 설 자리를 완벽히 박탈하는 작업"이라며 "의단타파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나라는 허상이 무너지면서 우주만물과 직결된 본래의 나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AI의 해설과 간화선 수행의 차이는 사구(死句)와 활구(活句)를 통해 설명했다. 경전과 선어록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르면 사구가 되며, 활구는 분별심과 알음알이를 끊고 수행자를 깨우는 말이라는 게 수불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AI는 언어 데이터의 조합을 계산한 것이다. 화두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정답만을 찾는 AI가 만든 사구를 더 많이 수집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활구 하나를 바로 드는 일'에 간절히 임해야 한다"면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활구를 들지 못한다면 활구를 들 수 있는 인간의 참선 공부는 AI시대에 가장 희유하고 숭고한 보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가 정답을 쏟아낼수록, 인간은 정답 너머의 근원적 물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기계가 세상을 유려하게 설명할 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의 당체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것이 AI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메시지"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2026 제5회
생명나눔대상
후보 공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한해동안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뜻깊은 상의 주인공이 될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선정기준
· 대 상 :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홍보상 : 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생명상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나눔상 : 봉사 ·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상 금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대 상	1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홍보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생명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나눔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공모기간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접수방법
· 제출 서류 : '제5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서식'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우편 혹은 이메일 제출 (lisa@lisa.or.kr)
· 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
· 문의 : (02) 734-8050

발표일정
· 수상자 발표 : 2026. 11. 9 (월)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식 : 2026. 11. 14. (토) 남양주시 별내 별빛도서관 대강당

역대 대상 수상자 안내


제1회 (故)박원순 서울시장


제2회 배우 수지


제3회 윤근향 이사


제4회 혜수 스님

“행복,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담마 웰니스’ 제안

제7회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 섹션 2

유기준 교수, 불교+웰니스 결합 조명
마음·관계·자연 등 5대 회복축 제시
안희영 소장, 명상 윤리기준 정립 강조
용타 스님, ‘해오주의’ 수행론 제시해
사라낭까르 스님, 명상과 자비 조명
대학 내 자비교육 필요성 조명 연구도


유기준 교수 안희영 소장 용타 스님 사라낭까르 스님 툽텐 텐다르 교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18일 진행된 명상 콘퍼런스 섹션2에서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담마 웰니스-불확실성 시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불교의 지혜와 웰니스의 실천을 접목한 ‘담마 웰니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인공지능과 기술 변화,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관계 빈곤, 정신건강 악화를 불확실성 시대의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따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된’ 문제”라며 개인과 공동체, 자연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철학적 바탕으로는 연기·자비·중도를 들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의 관점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와 극단을 벗어난 균형을 삶에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행복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면서 “우리의 작은 연결이 모여 더 큰 행복,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밝혔다.

담마 웰니스의 실천 영역은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자연과의 회복 △문화와 삶의 회복 △미래세대의 회복 등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이 축을 통해 명상과 마음챙김, 가족·공동체의 유대 강화, 생태보전과 기후행동, 전통문화·예술, 미래세대 교육 등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불교문화와 유산의 사회적 활용도 제안했다. 사찰림과 산사, 국립공원은 마음을 쉬게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명상은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공공의 자산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할 기반으로 정책·제도, 협력·파트너십, 교육·문화, 글로벌 연대도 제안했다. 개인의 생활 실천이 공동체의 행복과 국가의 회복력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과 회복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로 확장돼야 한다는 게 ‘담마 웰니스’의 골자다.

유 교수는 “‘담마 웰니스’는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며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지고 회복은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 명상이 나아갈 길을 묻다: 전통 불교 명상과 현대 마음챙김의 대화-MBSR을 중심으로’에서 전통 불교 명상의 깊이와 현대 마음챙김 대중성을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제안했다.

먼저 안 소장은 한국의 명상 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전통·의료 및 심리·시장·사회 환경이라는 네 개의 축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빠른 성장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안 소장은 국내 명상계의 과제로 △지도자 양성 체계화 △품질 관리와 윤리 기준의 미비 △상업화와 과장 △파편화 △연구와 현장의 괴리를 꼽았다. 그는 “지도자의 수행 깊이와 지도역량을 검증할 장치가 없다”면서 “‘며칠만에 깨달음’, ‘모든 병 완치’ 등 유사과학 마케팅이 국내 명상계 전반의 신뢰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함께 만들 ‘대화공동체’가 부족하다는 게 다섯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통 불교와 현대 마음챙김의 장점과 한계도 함께 살폈다. 전통 불교에는 계·정·혜의 수행 체계와 해탈·자비의 지향이 있지만, 출가 중심 구조와 종교적 언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대 마음챙김은 의료·교육 등으로 접근성을 넓혔으나 윤리적 맥락의 약화와 상업화 등을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전통과 현대의 영역에서 국내 명상계가 서로 교류해야 한다는 게 안 소장의 제안이다. 그는 “전통 명상계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현대 명상계는 넓은 평지에서 아무도 오르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얕은 넓음은 사라지고 좁은 깊음은 고립된다. 현재 국내 명상계에 필요한 것은 ‘넓게 들어와 깊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콘퍼런스’가 9월 17~18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됐다.

그러면서 안 소장은 한국 명상계를 위한 제언으로 △지도자 양성 표준 수립 △윤리강령과 품질 관리 체계 마련 △진영 간 대화의 정례 플랫폼 구축 △연구와 현장의 연결 △성인 교육학과의 접목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33개 단체가 함께 만든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지도기준 선언과 윤리강령이 마련돼 첫 걸음은 내딛는 상황”이라며 “남은 일은 현장 정착과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영 간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선명상 국제대회,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유해 이치를 깨닫고, 그 이해를 반복해서 닦아가는 ‘해오주의(解悟主義)’의 수행론을 제시했다.

‘불교와 해오주의’ 주제의 발표에서 용타 스님은 ‘해오주의’의 정의에 대해 “해오란 지성 혹은 이성으로 사유함으로써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어 “부처님의 주된 가풍은 해오주의였다”고 밝힌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이고 깨달음에 이른 방편은 팔정도의 2번째인 정사유(正思惟)였으며 불법을 전하는 핵심 방편도 사유”라고 강조했다.

용타 스님은 “부처님의 대각(大覺) 내용인 연기법은 사유로부터 나왔다”면서 “부처님은 사유를 통해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사유를 통해 연기무아해탈, 연기동체대비 등의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붓다가 되고 붓다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해를 통해 깨달았다고 수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깨달았으면 이제 수행의 시작”라며 해오주의를 돈오점수(頓悟漸修) 또는 선오후수(先悟後修)와 연결했다. 먼저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반복해서 관행(觀行)해 나간다는 것이다.

용타 스님은 “해오주의는 바로 돈오점수 혹은 선오후수와 같다. 먼저 깨닫고 닦아가는 것”이라며 “정상을 발견하는 것이 선오(先悟) 혹은 돈오(頓悟)라면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후수(後修)요 점수(漸修)”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팔정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목할 것을 청중에게 당부하며 “사유를 잘해 바른 이치[正見]를 발견하고, 정견을 기준 삼아 다시 사유(思惟)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해지지만, 생각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생각을 더 잘하면 해탈한다”고 바른 사유를 통한 수행을 재차 당부했다.

방글라데시 가야나사라나 불교 산림사원 주지 사라낭까르 스님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면의 평화 구축: 명상과 자비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비와 명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테라와다 불교의 명상에 대해 스님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나눠 소개했다. 스님에 따르면 사마타는 40가지 명상을 통해 고요함과 집중을 기르는 수행이며, 그 성취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위빠사나는 자신과 세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통찰을 기르고, 실재의 참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해탈의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

명상 수행의 기본 조건으로는 조용한 장소, 경험 있는 스승의 지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명상 주제, 꾸준한 알아차림을 제시했다. 사라낭까르 스님은 “명상은 적절한 지도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다.

툽텐 텐다르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통해 대학 내 자비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을 조명했다.

텐다르 교수는 자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부생 92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자비 총점의 평균은 74.45점에서 91점으로 약 22% 높아졌다. 타인에 대한 자비 총점은 99.54점에서 104.54점으로 5% 가량 상승했다. 행복·웰빙 요소(PERMA) 총점은 11.81%, 전반적 웰빙 점수는 11.54% 향상한 것으로 제시됐다. 자료집은 이들 사전·사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텐다르 교수는 “이 연구는 자비교육이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부정적 정서 감소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자비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진정한 지성(Authentic Intelligence)’”이라고 강조했다.

제56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제14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1일(토)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 시 상 식 : 2026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4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통도사, 빛과 예술로 피어나다

9월 28일, 미디어아트 개막
10월 18일까지 야간 순례
스카이 홀로그램 등 선보여
“수행자 자세 배우는 계기”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 통도사’가 9월 28일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개막해 10월 18일까지 21일간의 특별한 야간 순례 일정에 돌입했다. 메인 쇼 ‘마음의 꽃’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우담바라가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의 1381년 역사가 최첨단 미디어아트와 만나 찬란한 빛으로 피어났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통도사가 주관하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 통도사’가 9월 28일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개막해 10월 18일까지 21일간의 특별한 야간 순례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통도, 고요에 이르다’이다. 영축총림문 ‘시작의 문’을 통과해 성보박물관, 월영교 하천, 삼층석탑 주변 연못, 불이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7개의 상시 운영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들어서다, 바라보다, 스며들다, 피어나다’라는 네 가지 테마를 따라 걸으며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내면의 평안을 마주하게 된다.

개막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해 산사의 밤을 밝히는 빛의 향연을 축하했다.

개막식 현장은 천년 고찰의 장엄함과 빛의 예술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했다.

백미는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메인 쇼 ‘마음의 꽃’ 시연이다.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 속 우담바라가 프로젝션 맵핑과 스카이 홀로그램을 통해 밤하늘에 피어났다. 거대한 연꽃과 부처님의 형상으로 만개하는 장엄한 연출에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빛의 향연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무용수 최수진 씨의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가을밤 산사의 정취를 전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사부대중은 영축총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을 따라 직접 걸으며 빛으로 깨어난 통도사의 밤을 만끽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대신해 단상에 오른 총무국장 진응 스님은 〈금강경〉 사구게 중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을 인용하며 미디어아트가 지닌 깊은 불교적 의미를 전했다.

진응 스님은 “이 화려한 빛의 향연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꿈속 같고 물거품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며 “이번 행사를 단순한 놀이나 전시가 아니라 찰나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뜻깊은 행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통도사가 첨단 기술과 만나 도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축하를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통도사 미디어아트가 양산의 대표 문화 행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부처님의 정신을 빛으로 담아내는 이 소중한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은 “가을밤의 고요함이 통도사의 깊은 역사와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라며 “통도사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듯 오늘 밤 화려한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가을밤 산사가 건네는 고요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미디어아트 행사는 10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로 제한되며 산문 주차장과 환타지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 불자들, 삼귀의·오계로 새 출발

10월 10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초심자 위한 ‘법명 작명’ 지원 눈길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에서 수계(受戒)는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하는 기본이 되며, 어둠 속의 등불이자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나룻배로 비유된다. 이번 법회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자기완성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계대법회는 부산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덕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석의 의미를 더한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대율사(관음사 회주)를 비롯해 갈마아사리 심산 법미 대율사(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 효명 대율사(혜원정사 회주)가 3사(三師)를 맡아 청정 계율을 내린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도일·하림·지일·정관·덕림·성광 율사 등 7명의 스님이 존증아사리로 등단해 수계 제자들의 맹세를 증명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연합회 사무국으로 개별 접수하는 불자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해 법명 작명을 지원하고 있다. 사찰에서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사찰의 주지 스님이 작명을 완료한 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계 동참비는 1인 5만원이며, 참석자는 흰색 상의와 편안한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검색하면 라이브 생중계로 동참할 수 있다.

수계 접수 및 행사 관련 문의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051-501-7554)으로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8회 영축문학상 수상작 발표


유영희 시인


최성배 소설가


이석락 시인

대상에 유영희 시인 ‘그릇 닦기’
10월 11일 통도사서 시상식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회장 정영자)가 제8회 영축문학상 대상에 유영희 시인의 시 ‘그릇 닦기’를 선정했다.

영축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본심을 열고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작 5편을 확정해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은 유영희 시인의 ‘그릇 닦기’에 대해 “배고팠던 어머니의 어머니가 끼니를 걱정하는 소리가 담긴 그릇이, 비우고 깊어지는 지혜와 더불어 마음과 우주를 담는 그릇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시적 상상력으로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유영희 시인은 2007년 ‘수필과비평’ 2024년 ‘시와 편견’으로 등단했으며 통영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영축문학상에는 최성배 소설가의 ‘떠도는 그 눈빛’(소설)과 이석락 시인의 ‘한계선 아래 나부끼는 곡두’(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성배 소설가는 1986년 ‘동춘문학’으로 등단해 다수의 장편소설과 소설집을 출간했으며, 이석락 시인은 2005년 ‘자유문예’ 등으로 등단해 활발한 문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축문학작가상에는 문도경 수필가의 ‘메밀꽃 속에 너의 얼굴이’(수필)와 이명주 수필가의 ‘한 그릇의 공양, 한 그릇의 수행’(수필)이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제8회 영축시낭송상 수상자로는 2021년 ‘영남문학’으로 등단한 조아랑 시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영자 회장의 인사말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의 축사를 비롯해 물소리시극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몽골에 희망을 심다



창원 성주사 · 한가람재단
9월 13일, 2만달러 기부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와 한가람문화재단이 몽골 기후난민 아동과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주사와 한가람문화재단은 9월 13일 몽골 바양항가이 솜(Som·郡)을 찾아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비타민나무 숲 조성기금 2만달러(약 2800만원)를 기부하고 농촌마을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창원 성주사와 서울 금선사 불자들의 정성에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의 후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행사에는 법안 스님과 성주사 불자들을 비롯해 몽골 현지 어린이와 주민, 나눔을 주선한 푸른아시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법안 스님은 “나눔의 마음이 몽골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화엄행자들의 수행 의미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오늘 우리가 심은 비타민나무가 잘 자라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꽃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주사와 한가람문화재단은 2022년 스리랑카 자립연수원 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전쟁난민 쌀 지원, 라오스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북베트남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식당 보수 등 해외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36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문학·예술·언론·봉사 4개 부문
20년 이상 경력…10월 30일까지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가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36회 산해원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산해원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 공헌에 힘써온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그 뜻과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문학상 △예술상 △언론·학술상 △행원상(사회모범·봉사) 등 4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 경력을 갖춘 향토문학가, 문화예술인, 언론인, 학계 인사, 자원봉사자 등이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언론 부문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창작지원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천서와 공적조서, 주요 경력 및 수상·작품 관련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우편(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오피스텔 1401호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또는 이메일(chbg2112@daum.net)로 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 15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2시 창원 정법사 만불보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010-5246-2112 성낙두 경남지사장

다문화가족과 ‘중추절 달빛축제’

양산 해원사, 9월 26일 개최



양산 베트남사원 해원사(주지 틱느쩐프엉 스님)는 9월 26일 ‘중추절 달빛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한국 내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부모 세대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지 틱느쩐프엉 스님은 “중추절 축제가 어린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공간인 ‘연꽃봉오리의 집’도 소개됐다. ‘연꽃봉오리의 집’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날 노래와 춤, 시낭송, 퀴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또 연등을 들고 행렬에 함께하고 선물과 베트남 전통음식 등을 나누며 즐거운 중추절 추억을 만들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르신 초청 템플스테이

고현노인대학 40명 초청
불교문화 체험 및 공양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사는 9월 22일 봉서루에서 고현면 노인대학 어르신 4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 체험 및 대중공양’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류경완 남해군수, 김창우 경남도의원, 정진규·박삼준 남해군의원, 정세곤 고현면 노인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2023년부터 남해 곳곳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지역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은 용문사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정을 나누고, 경내를 둘러보면서 사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명불원 ‘가을밤 산사음악회’

9월 18일, ‘음악으로 마음 잇다’



깊어가는 가을밤 부산 동명불원이 음악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마음을 잇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동명불원(원장 마가 스님)은 9월 1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9회 가을밤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비룡산 가을밤, 음악으로 마음을 잇고 정으로 사람을 잇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산사의 정취와 대중음악, 불교문화가 어우러지며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지역 주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과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나누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내년 동명불원 창건 50주년을 앞두고 열려 의미를 더했다.

동명불원 원장 마가 스님은 ‘꽃’을 화두로 서로에게 먼저 웃음을 건네는 마음을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괜찮아”라며 꽃을 들고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난다”며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라고 간결하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월정사서 3000명 삼보일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10월 10일, 전나무숲길서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왼쪽)과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9월 28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일원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삼보일배'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월정사 오대산문화축전의 폐막이 대규모 삼보일배 수행으로 장엄된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몸을 낮추는 수행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와 가정의 평안을 발원하는 자리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는 9월 28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일원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삼보일배'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보일배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오대산문화축전의 폐막 행사로 마련됐다. 축전 개막일에는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 출토 사리를 1차 이운하고, 폐막일인 10일에는 금강경봉찬기도회 대중이 다시 사리를 모시고 전나무숲길을 삼보일배로 지나 월정사 경내까지 이운한 뒤 〈금강경〉 독송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올해 슬로건은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이다. 몸을 낮추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낮춤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가 가정과 사회의 맑음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삼보일배와 같은 몸을 통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혼란과 갈등이 심해진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낮춰 문제를 넘어서는 수행이 필수"라며 "몸으로 기억하는 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삼보일배의 좋은 습관이 정신의 방어력을 높이고 수행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00여 명의 참가가 확정됐다. 여기에 추가 참가자와 현장 참여자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동참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자들은 월정사 전나무숲길 성황각에서 시작해 월정사 경내까지 약 1㎞ 구간에서 삼보일배를 한다. 행렬의 선두에는 자장 율사 진영과 사리가 서고, 그 뒤를 회장 자현 스님과 기도신행실장 혜묵 스님을 비롯한 금강경봉찬기도회 대표 동참자와 봉사자, 일반 참가자들이 따른다.

특히 지난해 첫 삼보일배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방법을 다양화했다. 절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행렬 양쪽에서 세 걸음 걸은 뒤 합장 반배하는 '삼보저두'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무릎 보호대와 타올 등을 준비하고, 행사 중간에도 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했다.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삼보일배를 직접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삼보저두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고, 진행 중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기도를 습관화하도록 외연을 넓히는 것이 이번 삼보일배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033-339-6791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에 천월 스님 취임

10월 1일, 운문사서 총동문회 개최
천월 스님 '즉사이진' 자세 강조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제30회 동문회장에 천월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0월 1일 운문사 청풍료에서 '불기 2570(2026)년 운문사 승가대학 제55차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의 동문 스님들이 참석해 오랜 인연을 되새기고 선후배 간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날 총동문회에서는 제29회 동문회장 무영 스님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천월 스님에게 30회 회장직을 이양하는 이·취임식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제30회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천월 스님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인 '즉사이진(即事以眞)'의 마음가짐과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동문회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월 스님은 "싸리나무 한두 가지는 쉽게 부러지지만 한 다발은 천하장사도 부러뜨리기 어렵다고 한다"며 "우리 총동문회가 일심으로 단결한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동문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영 스님은 이임 인사에서 "임기 동안 여러 동문 스님들의 도움과 성원 덕분에 동문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운문사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문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회장단에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에서는 진명 스님, 법해 스님, 원영 스님, 정관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종회의원으로 당선된 데 대해 동문 스님들의 성원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동문들과 함께해 온 인연을 되새기며 총동문회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문회 재정보고와 활동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이 공유됐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건 △차기 회장 승인에 관한 안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됐다.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동문들은 장학금을 통해 후배 스님들의 수행과 학업을 격려하며 모교의 전통을 이어갈 후학 양성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축하 꽃과 동문회기 전달 후 참석자들은 운문사 승가대학의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사홍서원을 끝으로 제55차 총동문회를 회향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불갑사서 세 커플 '동행웨딩'

9월 30일, '상사화 축제' 맞아
사찰음식 80종 전시 · 시식도



붉은 꽃무릇이 장관을 이룬 영광 불갑사에서 세 커플이 가족과 관광객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9월 20일 '제26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맞아 경내 꽃무릇 군락지 특설무대와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제1회 동행웨딩'과 사찰음식 전시·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마련한 동행웨딩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병회·조정미 씨, 오문석·한남순 씨, 정지섭·왕지현 씨 등 세 커플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특히 이날 결혼식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무릇이 붉게 물든 불갑산을 배경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상사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하객이 돼 세 커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세 커플의 앞날을 축복하며 상사화축제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만들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례를 맡은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부부의 인연을 불교의 인연법에 빗대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당부했다.

결혼식과 함께 사찰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문화행사도 펼쳐졌다.

새롭게 조성된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는 홍승 스님과 사찰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스님들의 삼시세끼'를 주제로 사찰음식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는 스님들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보여주는 밥상·면상·죽상·차상 등 4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상마다 15~20여 가지씩 모두 80여 종의 음식이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쟁 비극 되풀이 않길"

9월 30일, 법륜사서 제8회 영산재
전쟁 피해자 극락왕생·평화 발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가 광주에서 봉행됐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호산 스님)는 9월 30일 광주 법륜사 설법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위령 영산재'를 봉행했다.

이번 위령재는 희생자들의 왕생극락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령재는 2019년 광주 서구청사 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법륜사에서 영산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치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미움과 갈등을 넘어 자비와 화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도의식은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회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스님들은 전통 불교의식과 범패·작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전승과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1981년 이후 5·18 희생자 추모재를 비롯한 각종 위령·추모 의식을 봉행하며 불교의 자비와 천도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라난타 인연 이어 불교 교류 나선다

9월 21일, 불갑사 등 방문
"한 · 파키스탄 교류 강화"



사예드 모아잠 샤 주한 파키스탄 대사 일행은 9월 21일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와 영광군청(군수 장세일),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라난타 스님의 백제불교 전래로 이어진 역사적 인연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파키스탄과 영광지역 간 불교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갑사를 찾은 대사 일행은 주지 덕상 스님과 환담을 갖고 한국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사는 불갑사 스님과 관계자들을 파키스탄에 공식 초청했다.

이에 따라 불갑사는 올해 안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간다라 성보박물관' 조성과 파키스탄 불교문화유산의 국내 교류전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덕상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을 통해 이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불갑사와 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불갑사에 간다라 성보박물관을 조성해 간다라 불교미술과 불상, 문화유산 등을 국내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교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전 대선사 58주기 추모 다례

9월 27일, 법주사 대웅보전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7일 대웅보전에서 '금오당 태전 대선사 5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진영각과 부도전을 차례로 참배하며 대선사의 뜻을 기렸다.

법달 스님은 추모사에서 "자성을 잘 아는 자는 생사에서 벗어나고 자성을 밝히지 못하는 자는 생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며 "노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화두를 잡아 자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공 스님은 추모사에서 "금오 노스님께서는 망국의 한을 품고 고통을 함께하는 시대에 수행자가 걸어야 할 바른길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의 도리를 일러주셨다"며 "수도인은 수행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행과 지혜로 중생을 고해에서 건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큰스님의 수행을 잘 받들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를 마친 대중은 진영각과 부도전을 찾아 참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이산 탑사, 빈집을 마을호텔로

9월 21일, 진안군 5개 기관 MOU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진안 용담호 주변 빈집과 노후 숙박시설을 되살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호텔' 사업에 마이산 탑사가 힘을 보탠다.

진안군은 9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마이산 탑사, 한남대학교, ㈜인터뷰와 함께 '스테이체인지(용담호 마을호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2026년 지역가치 창출 프로젝트'와 연계해 용담호 주변 마을의 유휴공간과 노후 숙박시설을 재생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은 "진안군에서 환경을 지키고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마을호텔 사업을 마련해 적극 동참하게 됐다. 앞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혜현 작가 초대전 '금빛 가피'

청송 대전사, 12월 31일까지



청송 대전사(주지 법일 스님)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내 갤러리 회연당에서 이혜현 작가 초대전 '금빛 가피, 금빛 위에 부처님 나투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혜현 작가의 금박불화 20여 점이 선보인다. 전통불화의 형식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광명과 깨달음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금색이 "지혜의 빛이며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깨달음의 광명"이라고 설명한다.

이혜현 작가는 일본 교토예술대학에서 일본화를 전공한 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교미술과 전통회화를 연구해 왔다. 전통 불화의 조형성을 기반으로 세련된 색채와 정제된 화면 구성, 금박을 활용한 표현으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대행선 사상, AI시대 문제 극복 대안”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
김응철 교수, AI 역기능 대안으로
대행 선사 ‘주인공·오공’ 등 조명
인경 스님, ‘마음챙김’ 문제 분석
‘염지관’ 수행체계로 극복 가능해



9월 19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에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를 발표하고 있다.

안양=신중일 기자

인공지능(AI)시대의 주체성 약화, 공동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행 선사가 주창한 주인공(主人空)·오공(五共) 사상 등을 실천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제2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AI시대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담론으로 대행 선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논문과 현대 심리치료법인 ‘마음챙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수행체계를 제안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을 중심으로’를 통해 AI시대에서 대행 선사 사상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되돌릴 수 없는 특이점’이 됐음을 전제한 김 교수는 AI시대의 문제를 △인간의 주체적 판단력 약화와 의존성 확대 △정체성 혼란 △창의성 상실과 지식체계 종속 △일자리 상실과 노동시장 불안정 △불평등 △권력 집중과 민주적 절차 위협 △공동체 붕괴 위험 등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AI가 여러 분야에서 인간 대신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판단이 확산될 경우 인간의 주체적 판단과 결정은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인간의 주체적 판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체적 판단 문제에는 ‘주인공 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과 그 성품이 공하다는 지혜를 함께 설명하는 주인공을, AI의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의존을 성찰하는 수행 원리로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주인공’은 기술과 인간을 하나의 근원적 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체성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의 화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실천의 원리로는 공체·공생·공심·공용·공식의 오공 사상을 제시했다. ‘공체(共體)’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전체 속에서 연결돼 있다는 인식으로 김 교수는 공동체적 토론과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확장하는 원리로 해석했다. AI가 제공하는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인간의 창의성은 고립된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면서 “공체 정신의 실천은 공동체적 토론과 협력을 통해 변형, 확장을 통한 창의성을 회복하고 상호 연결과 전체성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 상실과 지식체계 종속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자기 가치의 상실에는 ‘공생(共生)’의 실천을 제안했다. 인간은 창의적·감성적·윤리적 영역을 담당하고 AI는 반복적·분석적 업무를 맡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인간과 AI의 공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심(共心)’은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원리다. ‘공심’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을 확장하고 배제된 집단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디지털 포용 정책,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강화로 연결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권력 집중과 민주적 절차의 위협에는 ‘공용(共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용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활용하고 공유하는 실천 정신을 의미한다”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공유, 지식과 정보의 공동 활용은 공용의 원리에 입각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특정 집단의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 유대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식(共食)’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식은 물질적 차원의 식사 공유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자원과 가치의 공동 분배와 나눔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공식의 실천은 현대사회에서 공유경제 모델의 확산,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공동체적 의례와 활동의 제도화 등을 통해 공동선(共同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행선 사상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김 교수는 ‘정보를 어떤 관점과 가치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프레이밍 효과’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프레이밍 효과’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의 사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행 선사의 주인공·한마음·오공 사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위기를 재구성하는 유효한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원장 인경 스님은 ‘마음챙김(Mindfulness) 개념의 한계 극복과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통해 서구에서 개발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4대 명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분석·비판하고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체계로서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제시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AI가 알려주는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 분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려면 자기 자신이 알아야 직원도 부릴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 “한마음 사상이 수행적 나침반이 돼 기술과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각사상’으로 선불교 윤리 조명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
10월 22일…도법 스님 기조발제

오늘날 다양한 수행·명상 문화 확산 속에 불교 수행의 의미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선불교의 윤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학회(회장 향산 스님)는 10월 2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선불교와 윤리-본각사상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원 실상사·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 한국선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과 조계종의 역사적·실천적 기반을 되짚고, 본각사상을 중심으로 선불교의 윤리적 함의를 조명하는 자리다.

특히 선불교의 깨달음과 수행이 인간의 삶과 관계,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며 전통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선불교가 지니는 수행적·윤리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실상사 조실 도법 스님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 통도사 전계사 덕문 스님이 ‘중국 선종이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한 이유’,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이 ‘선의 주체와 자유: 본각사상과 관련하여’,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선불교와 윤리: 공성과 윤리는 어떻게 합일할 수 있는가’, 기본선원 교선사 종묵 스님이 ‘선의 돈오와 점수는 윤리적 실천을 달리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학술대회에 앞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배희정 기자

제11회 천태예술대전 대상에 ‘삼신불도’

11월 24~30일 한국미술관서 전시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을 수상한 황체상 작가의 ‘삼신불도’.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황체상 작가의 전통불화 ‘삼신불도(비로자나불도·노사나불도·석가모니불도)’가 선정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주최하고 천태문화사업단(단장 월도 스님)이 주관한 이번 공모대전에는 총 142점이 출품됐다. 국가유산청장상인 최우수상에는 조각공예 부문 강민정 씨의 ‘장엄, 빛을 잇다’가 선정됐다.

심사에는 조해종·김선희(전통불화), 양선희(현대불화), 서칠교·남지향(조각공예), 홍대희·박현숙(민화)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에 대한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한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부문별 우수상에는 전통불화 황난숙 작가의 ‘군위 법주사 괘불탱’, 현대불화 지승호 작가의 ‘락무비천도’, 조각공예 조용준 작가의 ‘연꽃 속 관세음보살’, 민화 김은선 작가의 ‘호피장막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각 부문 장려상과 특별상 등 수상작이 결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특히 조각공예 부문의 출품작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이 고무적”이라며 “각 분야 출품작의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돼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심사에도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인 황체상 작가의 ‘삼신불도’에 대해서는 “전통불화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가운데 삼신불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천태종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시상식은 11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유산, ‘가치’ 중심으로 보존해야”

이수정 전문위원, 9월 30일 열린 조계종硏·佛문화유산硏 세미나서
“예불·수행 등 이어지는 사찰은 ‘살아있는 종교유산’으로 봐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문화유산은 특정 시점의 원형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미적·학술적·정신적 가치와 이를 구현하는 유형·무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찰은 예불·수행·의례·교육과 공동체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인 만큼 종교적 기능과 원형 유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산이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수정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연구소·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개최한 ‘근대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가치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전문위원은 2024년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면서 유산 보존정책도 물질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가치 중심의 접근은 현재까지 종교적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유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위원은 불교유산의 보존을 ‘물질과 정신’, ‘보존과 사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산의 가치가 원상의 유형·무형적 속성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 중심의 불교유산 보존관리는 ‘가치의 확인-원상의 속성 파악-가치변화의 예측-대안 비교·의사결정’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전문위원은 “해당 유산에서 어떤 가치가 핵심인지 확인하고 그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속성과 속성 간 관계를 파악한 뒤, 계획된 변화가 가치에 미칠 영향을 살펴 여러 대안 가운데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연구소·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근대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역사·문화적 가치’ 학술세미나.

이어 “수행, 예배, 의례, 교육과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는 살아있는 종교유산”이라며 “종교적 사용과 기능, 불교공동체의 전통적 관리방식, 장소에 부여된 정신적 의미는 불교유산의 중요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상 속성”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불교유산의 가치평가와 원상 속성 확인을 보존관리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선행절차로 제도화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평가도구 마련 △불교공동체가 가치 확인 및 의사결정 참여 △전문인력과 조직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전문위원은 “가치와 원상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불교유산의 물질적 실체뿐 아니라 종교적 기능, 정신적 의미와 공동체의 전승을 함께 보존하기 위한 사고의 틀”이라며 “기존의 원형유지 중심 보존을 살아있는 불교유산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통합적 보존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6 붓다의 마음, 중생의 표현 展’

한국불교미술협회, 10월 5~11일
한벽원미술관서 제34회 협회전


이미희, 초발심(71×86㎝, 비단채색, 2026).

붓끝에 금가루를 묻혀 관음보살의 모습을 재현하는 작업은 그림을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수행에 가깝다. 가느다란 선 하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경 작가의 ‘수월관음도’는 그렇게 그려졌다. 금빛으로 새긴 마음속 깊은 고요와 간절한 발원이 화면을 넘어 작품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도 고요히 머문다.

이미희 작가의 ‘초발심’ 역시 마찬가지다.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과 이를 품어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통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시작과 성장의 여정을 화폭 위에 펼쳐놓는다.

오늘날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한벽원미술관에서 기획전시 ‘2026 붓다의 마음, 중생의 표현 展’을 연다.

올해로 34회째인 이번 전시에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단청, 민화, 문인화, 서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불교와 불교문화예술이 나가야 할 지향점을 찾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본래 형상이 없는 붓다의 마음을 수행과 신앙, 사유와 미적 감각이 결합된 시각언어로 보여준다. 관람객에게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각자 자신만의 ‘마음의 풍경’을 마주하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동국대, 한국전통문화대, 동국대 WISE캠퍼스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소통하며 한국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개막식은 10월 7일 오후 5시.

배희정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의 머리에 불이 붙었다

⑱ 여구두연(如求頭燃)

선종의 대표적인 핵심 전적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당나라의 대시인 백낙천(772~846)이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살던 조과 도림 선사(741~824)를 찾아간 일화가 나온다.

항주 자사로 부임한 백낙천이 불법의 대의를 묻자, 선사는 〈법구경〉의 ‘칠불통게(七佛通偈)’를 인용해 “나쁜 짓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행하라”고 답했다. 백낙천이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라며 웃자, 선사는 “세 살 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일갈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일이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오늘 하루 구체적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다.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눈앞의 과제들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수험생에게는 당장의 입시가, 취업 준비생에게는 채용 공고가, 자영업자에게는 이달 임대료가 눈앞에 닥친 ‘초미지급(焦眉之急)’이다. 선종 경전 〈오등회원〉에서 ‘눈썹에 불이 붙은 듯한 다급함’이라 표현했듯, 사람들은 생존의 불안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음속에서 타들어 가는 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마음을 돌보는 일도 절박하다. 이를 가리키는 말이 ‘여구두연(如救頭燃)’이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잠시도 지체할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아야 함을 뜻한다. 〈대지도론〉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주희 역시 학문과 성찰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자주 인용했다고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전한다.

티베트의 성자 밀라레파(1052~1135)는 이러한 절박함을 온몸으로 살아냈다. 그는 무상함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 나는 산속 동굴로 달아났도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고 수행하노라.”

또한 악업의 무게를 절감하며 “지옥의 고통이 내 눈앞에 선하여 잠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노라.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굴을 나가지 않으리라”며 사즉생의 각오를 다졌다. 나아가 “사람들은 내일이 올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일과 다음 생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안일한 삶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도 탐욕과 집착에 매달린다면, 이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을까. 젊은 세대가 자신을 채우기보다 남에게 보이는 삶에 치우치는 것, 이 또한 서둘러 꺼야 할 불이 아닌가. 그런데도 정작 자신을 망가뜨리는 불길 앞에서는 무감각해진 채 살아간다. 그 사실이 섬뜩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후령통 종교·예술적 가치 조명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10월 1일~내년 3월 31일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후령통.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부처님 속 우주 후령통’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6년 국가유산청 전통산사국가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후령통의 해체와 납입 과정은 물론, 개별 유물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및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후령통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유산 4건과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0건 등 성보 56건 174점에 달하는 복장물이 한자리에 공개된다.

전시는 〈조상경〉에 기반한 복장의례 절차와 후령통 납입 물목의 의미를 중심으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부처님 품속에 생명력을 넣다’에서는 불상과 불화 조성, 복장의 종교적 배경을 다루며 불복장의 개념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을 안내한다.

2부 ‘후령통을 장엄하다’에서는 후령통의 해체 및 납입 구조를 시각적으로 연출해 후령통 내부 구성요소를 선보인다. 특히 ‘평창 월정사 북대 고운암 미륵보살좌상’ 등의 후령통을 통해 불상과 불화 간 후령통 양식의 차이를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다.

3부 ‘佛, 오롯이 만나다’에서는 후령통이 불상과 불화 내부에 납입돼 완벽한 신앙의 대상으로 완성된 모습을 조명한다.

박물관장 해운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성보에 담긴 대중의 정성과 바람, 후령통 안에 고이 깃든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희정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2027년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예약접수중
돌로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6월 말은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계절입니다.
출발일 :
1차 6월23일~7월01일
2차 7월05일~7월13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27년1월13일 출발~1월20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차 11월20일 출발~11월29일 도착
2차 27년1월16일출발~1월25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차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
2차 27년1월21일 출발~26일 도착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27년3월14일 출발~19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출발일 : 27년5월25일 출발~5월31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길
27년 5월24일 출발~6월02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출발일 : 6월12일~6월27일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0~10/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6	신편치문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2	THE DIAMOND SUTRA	무비,조현춘 공역	운주사	7	은둔	조현	불광출판사
3	고광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8	조론	조병활 역주	장경각
4	마음으로 그리는 극락세계	무비 감수	한영출판사	9	DIARY OF A KOREAN ZEN MONK	VEN.JIHEO/지허	불광출판사
5	붓다의 근본 가르침	이철현	아름원	10	궁금하세요? 우리 절집	고연희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7	티벳 불교에 대한 짧고 깊은 안내	매튜 캡스타인	운주사
3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빼알리 경전과 함께하는 인도 불교 성지순례 가이드	무념 엮음	옛길
4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니어링/이석태	보리출판사	9	고광 스님의 임제록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기록 밖의 수행자를 만나다



은둔
조현 지음
불광출판사
2만5000원

20년 만의 개정증보판
은둔 수행자 41명의 삶
"삶으로 빛을 남긴 이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삶에서 지속되는 현상일까. 오랜 수행 끝에 문득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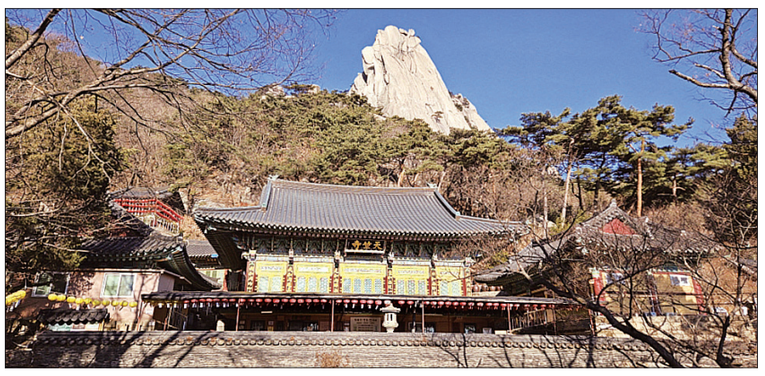
20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은둔〉은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초판에 고우·도천·서암·연관·오현·청화·연기 스님과 박한영·백학명·삼성·취봉 스님 등 11명을 더해 41명의 삶을 담았다.

24년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는 전국의 산사와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승과 수행자들을 직접 만나고 교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어떤 유년을 지나 출가했고, 왜 수행에 목숨을 걸었으며, 긴 정진 끝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기록했다.

책에 등장하는 수행자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때로는 괴팍하고 파격적이며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겉으로 드러난 기행이 아니라, 오랜 수행이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결국 사람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했는지를 살핀다.

지월 스님은 자신을 때린 사람의 손부터 걱정했다. 수월 스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줄 것은 한량없이 많다고 여겼다. 청화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며 삼배를 올렸다. 이들에게 수행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책에 등장하는 수행자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발점에는 가난과 상실, 전쟁과 죽음 같은 깊은 고통이 놓여 있었다. 전강 스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젖먹이 동생을 업은 채 젖동냥을 다녔다. 우화 스님은 어머니를 잃은 뒤 집을 나왔고, 오현 스님은 여섯 살에 절에 맡겨졌다. 보월 스님은 걸인으로 떠돌다 출가했다.



〈은둔〉은 고통을 자유로 바꾼 41명의 숨은 수행자들을 소개한다. 사진은 무문관이 있는 서울 도봉산 천축사. 사진 출처=천축사 홈페이지

그들에게 수행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도피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현기 스님은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40년 넘게 홀로 화두를 붙들었다. 보문 스님은 90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에 나섰고, 제선 스님은 6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무문관에서 수행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한 이들은 오히려 점점 가벼워졌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권위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살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삶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찾아 헤맨 수행자들을 '빈자의 등'에 비유한다. 화려한 이름 대신 삶으로 빛을 남긴 이들. 이들이 밝힌 작은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는 과정임을 마흔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불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백제금동대향로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2만2000원

유 · 불 · 도교 어우러진 유산
수미산 세계관 근거 향로 해석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백제금동대향로는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 중 출토됐다. 발굴 직후엔 향로의 조성 형식을 두고 도교의 영향을 받은 유물로 추정했으나, 출토된 장소가 사찰 터로 밝혀진 후로는 관련 연구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왕 시절 왕권 강화를 위해 적극 도입한 유교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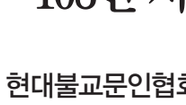
저자는 선행 연구를 살핀 후 '불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도교, 유교가 결합한 형태'로 해석한다. 불교의 수미산 세계관에 근거해, 불교의 백과사전격인 〈경률이상〉 속 금시조와 용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향로 속 불교의 비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준다.

특히 저자가 주목한 것은 금시조다. 향로 맨 위 여의주를 품고 있는 금시조와, 가장 아래 위치한 용이 팔 하나를 하늘로 뻗고 있는 모습이 〈경률이상〉 속 금시조 정음의 최후를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음의 심장, 즉 여의주를 얻는 존재는 전륜성왕이므로 향로의 주인이 곧 전륜성왕이자 백제왕 중 한 명이라 추측한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꼼꼼히 살펴본 후 향로가 출토된 능산리사지를 거쳐 백제 왕궁터를 살펴보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향로에 새겨진 백제인들의 사상을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통일 이후 신라 역사와 전승



삼국유사 기이2편
일연 지음
신대현 번역 · 해설
혜안
2만4000원

문무왕에서 경순왕까지
해설과 사진으로 만나다

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삼국유사〉를 번역·해설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흥법·탑상편〉에서 우리 불교사와 불교미술에 대해 들려준 데 이어, 〈기이1편〉에서는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고대국가의 시조들과 신화적 인물들을 소개했다.

〈기이2편〉은 문무왕 시기부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맞이한 새로운 위기, 왕권의 변화, 불교 신앙과 민간 전승, 신라 말기의 혼란과 고려로의 이행이 차례로 펼쳐진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나당전쟁, 사천왕사와 문두루 비법, 문무왕의 동해 용 전승, 감은사와 이견대 설화 등을 통해 통일 이후 신라가 맞이한 국가적 위기와 그 위기를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중간부에서는 정치와 불교, 향가와 차 문화, 산신신앙와 왕실 의례가 어우러진 신라 문화의 결을 살필 수 있다. 후반부는 신라 말기의 정치적 동요와 왕조의 마지막 장면이 차례로 드러난다.

각 장에서 원문과 번역을 제시하고 그 전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해설을 덧붙였다. 또 풍부한 유적과 유물 이미지를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앞으로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다섯 편목을 번역·해설해 전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108편 시로 기념한 '불교와 문학' 100호

현대불교문인협회 기관지
"불교문학, 삶의 답 제시"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가 펴내는 계간 〈불교와 문학〉이 100호를 맞았다.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문예〉 〈마하야나〉 등의 제호를 거쳐 〈불교와 문학〉으로 발간되고 있다.

2026년 가을호인 100호에는 시인 100명의 불교 제재 시 108편이 실렸다. 로담·범상·법산·법현·수완·원담·일대·지우·혜륜·혜조 스님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과 신달자, 도종환, 홍사성, 문태준 시인 등 외부 필진의 시를 만날 수 있다.

신인상 수상자인 김명자, 최순미 시인의 작품과 수상 소감, 심사평도 게재됐다.

공광규 발행인은 권두언에서 "108명의 현역 시인이 각자의 일상과 사유 속에서 건져 올린 시편들이 108개의 염주 알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결돼 하나의 커다란 서장의 고리를 만들었다"며 "기술적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겪는 야만의 시대에 불교문학은 삶의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당시 언어로 읽는 만해 스님 글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
만해아카이브연구소 펴냄
학연문화사 / 전집 45만원



불교적으로 본 만해 한용운
서윤길 지음
학연문화사
3만원

만해아카이브연구소 원전 영인
5년간 자료 모아 10권 '전집' 출간
2029년 목표 현대어 번역 추진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님의 침묵〉 간행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저술을 원전 중심으로 집대성한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전 10권)가 출간됐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대표 이창경, 이하 연구소)는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저술 초간본과 최초 발표 지면을 10권의 책으로 묶었다.

만해 스님이 활동한 1900년대 초반은 순한문·현토문·국한문혼용문· 한글문이 함께 쓰였고, 활판 인쇄와 편집 관행, 일제강점기 검열과 출판 조건이 텍스트에 영향을 주던 시기였다. 때문에 흩어져 있던 저술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간본 등을 후대 판본과 대조해 '만해 스님이 실제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자료 조사부터 편찬까지 5년이 걸린 이유다.

전서 출간에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를 간행위원장으로 정우 스님, 김진병 소장과 전보삼, 신승운, 홍사성, 김광식, 이창경 위원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서윤길 교수의 제자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 회장이 전서 제작에 힘을 보탰다.

책에는 대표 저술인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십현담주해〉 〈님의 침묵〉을 비롯해 시·시조·한시, 잡지와 신문 기고, 〈흑풍〉 〈박명〉 〈삼국지〉 등 연재 소설까지 수록했다.

'별책'에는 90여 페이지에 이르는 '생애 연보'와 책 광고와 사진 등 희귀 자료를 담았다. 또 지금까지 출간된 만해 스님 관련 160여 종의 단행본,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 1000여 편의 목록, 학술대회 발표문과 언론·출판 매체의 만해 론까지 관련 자료를 망라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스님 묘역에서 봉행된 고유제에서 이창경 대표는 "오랜 세월 선사의 말씀은 책 속에, 신문과 잡지의 지면에, 때로는 빛바랜 한 장의 문서에 흩어져 있었다"며 "우리는 선사께서 처음 쓰고 세상에 내놓으셨던 그 말씀의 본디 모습을 되찾고자 했다"고 전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당시의 언어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그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20일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만해 스님 묘역에서 봉행된 〈교감영인 만해 용운당 전서〉 출간 고유제 모습. 사진 제공=만해아카이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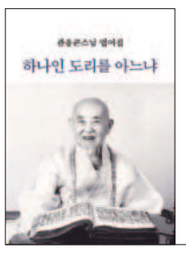
이를 위해 연구소는 만해 스님 탄신 150주년인 2029년을 목표로 현대어 번역본 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병 만해아카이브연구소장은 "교감영인 전서가 흩어진 원전을 찾아 바로잡고 '당시의 언어'로 만해를 다시 만나는 작업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현대어 번역 전서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한편, 서윤길 교수는 전서와 별도로 〈불교적으로 본 만해 한용운〉(학연문화사)이라는 단행본도 출간했다.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라는 다면적인 삶과 사상을 '불교'라는 프리즘으로 읽어낸 책이다.

서 교수는 "만해의 독립운동 정신은 개인을 깨치는 일에서부터 나라 되찾는 일, 일체중생을 해탈케 하고 무명에 훈습된 진여 불성을 회복케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의미"라며 "이 책은 만해가 정리한 불교 수행 체계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대역사의 과정을 밝혀보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모두가 부처의 덕상 지닌 참생명"

〈德相〉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
관응 스님 법문
김현준 엮음
효림출판사
1만원

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
'참생명' 가르침 담은 법문집

"중생들 모두는 하나의 참생명인 부처의 그윽한 덕상(德相)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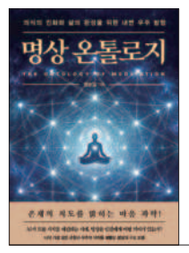
효림출판사가 펴내는 '큰스님 법문집' 시리즈로, 월간 '법공양'에 게재된 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1910~2004)의 법문을 모은 책이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법의 핵심인 '참생명'이 무엇인지, 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또한 "'나'를 내려놓고 슬기롭게 배우는 것이 참된 구도요 보살도의 시작"이라며 "수행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정성껏 부지런히 행하며 틀림없이 하나인 도리를 깨달아 평화롭고 멋진 삶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관응 스님은 19세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금강산 유점사 강원을 수료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일본 용곡대학을 졸업했다. 월정사·동화사 강사를 지냈고 조계사·용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1957년 직지사 조실, 1981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1982년 직지사에 황악불교전문학림을 개설해 전강 제자 10명을 배출했으며, 1984년부터는 직지사 중암에 주석하며 후학을 제접했다. 1987년 조계종 제1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 세수 95세, 법랍 76세로 원적에 들었다.

관응문도회는 "불교를 오래 공부한 분에게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고,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낯설지 않게 다가가는 작은 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여수령 기자

흩어진 수행 조각을 하나의 지도로 그리다



명상 온톨로지
정순일 지음
운주사
4만3000원

철학에서 '온톨로지(Ontology)'는 존재의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존재론'을 뜻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흩어진 정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만드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저자는 이 개념을 명상에 적용했다. 불교를 비롯해 여러 수행 전통과 심리학, 뇌과학, 물리학 등에 흩어져 있던 '명상'에 대한 생각과 수행법을 하나로 연결해 '명상의 전체 지도'를 그려낸 것이다.

정순일 원광대 명예교수는 그간의 연구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의 기본을 '사띠(깨어있음)'와 '사마디(집중)'에서 찾는다. 그리고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몸과 마음, 의식, 나아가 우주와 존재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술을 넘어 존재론적 탐구로 확장된다. 저자는 이를 통해 명상하는 인간인 '호모 메디탄스(Homo Meditans)'의 개념을 정립한다.

명상 원리 · 수행 체계 통섭적 재구성
'창발 · 환원 · 현현명상'으로 생활선 모색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가 체계화한 창발명상(創發冥想)·환원명상(還元冥想)·현현명상(顯現冥想)이다.

저자에 따르면, 자애와 연민을 바탕으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창발명상이 '채움(지복)의 길'이라면, 일상에서 집착과 에고를 내려놓고 순수의식을 회복하는 환원명상은 '비움(해탈)의 길'이다. 그리고 채움과 비움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현현명상'이 시작된다고 본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명상은 밥 먹고 걷고 일하는 삶 자체가 되고, 개인적인 깨달음이 다시 세상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 순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불교의 우주관과 수행체계를 현대 과학의 시각과 연결한다. 불교의 삼계(三界)와 현대 물리학의 우주론을 함께 살펴보고, 구차제정과 대승 십지 수행, 신체 에너지와 차크라 등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또 몸과 마음을 하나로 간주하는 '보마인드(Bomind) 철학'을 제안하며, 명상이 몸과 의식, 에너지가 함께 변화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나아가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등 첨단 과학을 접목해 명상의 신비주의적 베일을 벗겨내고, 일상에서 완성하는 '생활선(生活禪)'을 제시한다.

특정 명상 전통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 영성'을 지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AI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정신혁명'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AI가 모든 지식과 답을 제공하더라도 '순수하게 존재하는 의식'과 '내면의 신비한 에너지'는 결코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명상을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의 창발과 환원의 리듬에 공명하여, 삶에서 지극한 행복을 꽃피우고 참다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내면의 연금술", "내면의 의식과 에너지가 주도하는 삶을 지향하며 삶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는 문명의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설명한다.

책 말미에는 미주와 찾아보기를 수록해 학술적 깊이를 높였으며, 각 장의 끝마다 저자의 시를 실어 사유의 여백을 더한 점도 눈길을 끈다.

파편화된 명상 이론과 수행법을 하나의 지도로 그려낸 저자는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아름답게 '창발'하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환원' 중이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을 응시할 때, 행복과 해탈의 문은 언제나 소리 없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배희정 기자



소유 넘어 환원의 삶 묻게 해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⑨ 출가자들의 소유물 – 발우

時二人白世尊言. 今奉獻蜜麨慈愍納受時世尊復作如是念. 今此二人奉獻蜜麨. 當以何器受之. 復作是言過去諸佛如來至眞等正覺. 以何物受食諸佛世尊. 不以手受食也. 時四天王立在左右. 知佛所念. 往至四方. 各各人取一石鉢. 奉上世尊. 白言. 願以此鉢. 受彼賈人麨蜜. 時世尊慈愍故. 卽受四天王鉢. 令合爲一. 受彼賈人麨蜜. 受彼賈人麨蜜已. 以此勸喻. 而開化之. 卽呪願言.

"세존이시여, 저희가 올리는 보리죽과 밀환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에게 오랫동안 안녕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여래들은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보리죽과 밀환을 받을까?" 그때 사천왕이 세존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사방에서 돌 발우를 하나씩 가져와 바쳤다. "세존이시여, 이 발우에 보리죽과 밀환을 받으십시오." 세존께서는 새 돌 발우에 음식을 받아 드셨다.

–〈율장〉 '마하박가' –



한국불교 공양의식 발우공양 모습. 발우의 재료는 달라졌어도, 출가자의 식사가 절제와 감사의 마음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장 많은 대중에게 불교의 스님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을 말할 것이다.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글을 통해 그의 삶과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소유〉가 전하는 검소함은 출가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소유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 영향으로 출가자는 언제나 적은 물건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의식주를 꾸리는 방식과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은 달라진다. 새로운 생활필수품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곧 검소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가자의 보시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출가자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지닐 수 있는가는 그 시대의 환경과 수행 공동체의 생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유물의 수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쓰임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출가자의 생활용품은 달라져도, 평생 지니는 기본 물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 흔히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고 부르는 세 벌의 가사와 한 개의 발우다. 가사는 출가자의 몸을 가리고 위의를 드러내는 옷이며, 발우는 탁발해 음식을 받는 그릇이다. 옷과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지만, 출가자는 이를 탐닉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 가운데 발우는 한 사람의 식기이면서도 보시를 받는 출가자의 삶과 그 보시에 응하는 재가자의 삶을 이어 주는 물건이다. 이번에는 발우가 경전에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재료가 허용됐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전에는 출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 길을 나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발우는 일상적으로 지녀야 할 필수품이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받을 때에는 아직 발우를 지니지 않으셨다. 깨달음을 이룬 뒤 두 상인 따뿟싸와 발리까가 보리죽과 밀환을 올리는 이야기에 이르러 발우가 뚜렷하게 등장한다.

붓다께서 '여래는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자 사천왕이 그 뜻을 알고 사방에서 돌로 만든 발우를 하나씩 가져와 바쳤다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율장〉 '마하박가'의 장면이다. 다른 전승에서는 그 돌을 알라산(頻那山)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음식 한 끼를 받는 장면에 네 개의 발우가 등장한다는 점은, 수행자의 식사가 혼자 마련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공양과 인연에 기대어 이뤄진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붓다께서는 사천왕에게 돌 발우를 공양받으셨지만, 출가자들에게 허용된 발우의 재료는 따로 정해져 있다. 〈율장〉은 쇠 발우와 질그릇 발우 두 종류를 허용하고, 금·은·보석처럼 값비싼 재료로 만든 발우를 금한다. 수행자가 쓰는 그릇이 부와 장식의 대상이 되면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나무 발우 역시 초기 율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설명 등은 관련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재료를 금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식사를 위한 기본 물품조차 사치와 과도한 소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는 점이다.

출재가 삶 잇는 필수품이자 법 전승 상징
수행자에 타인 공양과 인연 돌아보게 해
재료 제한은 사치·지나친 소유의 경계 뜻
절제·감사 바탕된 출가자 식사의 의미도

佛結戒八種鉢不應畜. 聽比丘用二種鉢. 若瓦若鐵. 而自用石鉢.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여덟 종류의 발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구들에게는 질그릇 발우와 쇠 발우 두 종류만 허용하셨으나, 당신은 돌 발우를 사용하셨다.

–〈대지도론〉 권 42–

從今不聽畜上諸鉢. 若畜金銀乃至石鉢皆突吉羅. 若畜木鉢偷蘭遮.

지금부터 앞서 언급한 여러 발우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금·은으로 만든 발우에서 돌 발우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니면 돌길라(突吉羅, duṣkṛta, 참회가 요구되는 죄)이며, 나무 발우를 지니면 투란차(偷蘭遮, thullaccaya)이다.

– 〈오분율〉 권25 –

붓다께서 돌 발우를 사용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대목은 언뜻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원문은 그 차이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돌 발우를 '진리의 발우'로 보는 상징적 해석, 무겁고 거친 재질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 붓다와 제자들의 지위를 구별하는 뜻 등이 후대의 설명으로 제시돼 왔다. 이러한 해석은 계율 조항 자체와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하다. 계율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출가자에게 허용된 두 가지 재료와 금지된 재료의 범위다. 그 기준을 통해 발우가 음식을 담는 데 충분하면서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활 원칙을 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발우를 많이 사용한다. 나무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이고, 옻칠을 하면 오래 쓰면서 관리할 수 있다. 초기 율장의 재료 규정과 현재 한국 불교의 관행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이를 단순히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보다,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 형성된 규정과 실천의 차이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료는 달라졌어도 출가자의 식사가 절제와 감사의 마음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발우는 출가자의 생계를 위한 물품인 동시에 수행과 법의 전승을 상징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우를 전하는 모습에는 한 끼의 음식을 얻는 일과 가르침을 이어받는 일이 함께 겹쳐 있다.

율장에는 아직 고쳐 쓸 수 있는 발우를 두고 새 발우를 구하는 일을 경계하는 규정도 있다. 발우의 수선 흔적이 다섯 군데에 이르렀는지가 새 발우를 청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될 만큼, 깨지거나 낡았다고 곧바로 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재질에 따라 실제 수선 방법과 사용 가능 여부는 다르다. 핵심은 불편함을 무조건 참으라는 데 있지 않다. 쓸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더 이상 쓰기 어려울 때에만 새 물건을 마련하는 절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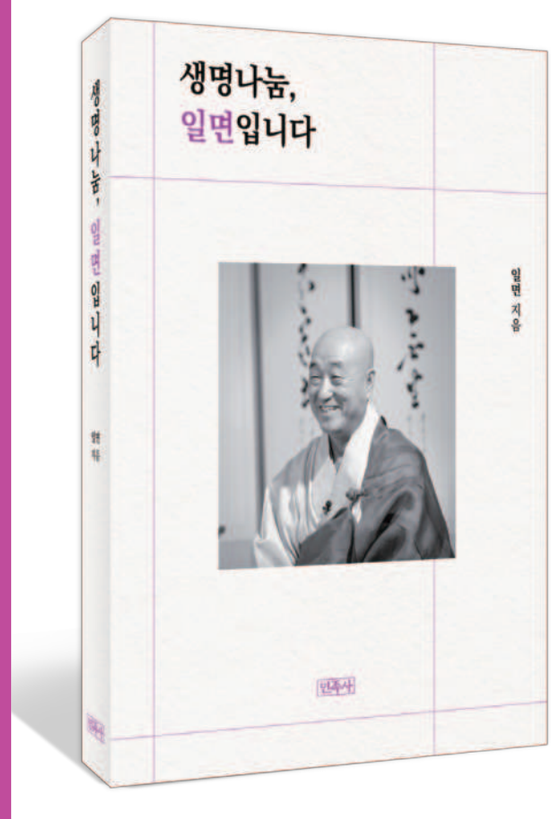
발우에 적용된 이러한 태도는 다른 생활용품을 대할 때에도 생각해 볼 만하다. 발우를 들고 마을을 돌며 탁발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남방 불교권에서는 여전히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발우공양이라는 독특한 식사 문화가 이어져 왔다. 발우를 펼치고 음식을 받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먹는 일은 단지 식사 방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들인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 남기지 않으며,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연습이 된다. 재가자에게도 발우 자체보다는 발우공양의 모습이 더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식사법의 바탕을 이해하려면 먼저 발우가 출가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출가자가 줄어들면서 발우공양을 직접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발우가 전하는 뜻은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나치게 많이 담지 않고, 받은 음식을 아껴 먹으며, 그릇을 깨끗이 돌보고 오래 사용하는 일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과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이 태도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된다. 발우공양을 단순히 '친환경적인 식사법'으로만 설명하면 수행의 의미가 좁아질 수 있지만, 검소함과 감사가 자원을 아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놓칠 수 없다. 발우 한 그릇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뿐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다시 세상에 돌려줄 것인가를 묻게 한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

킬리만자로에 퍼진 한국어…농업기술에 'K-컬처' 더하다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③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외곽의 무와송가 마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밭과 온실, 축사를 오가며 현장 실습을 하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에 또 하나의 배움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이다.

보리가람에 들어선 한국어 교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이하 세종학당)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의 학당 모집에 보리가람이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보리가람이 갖춘 교육시설을 활용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학당 운영을 맡은 보리가람 측은 당시 한류가 미주와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탄자니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국어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절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에서는 현재까지 531명이 한국어를 공부해 수료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약 60명이 수료했고 하반기에도 약 100명이 수강을 준비하고 있다.

보리가람이 위탁운영을 하는 만큼, 수강생의 80%는 보리가람 학생이고 나머지 20%는 인근 중등교육기관 학생과 일반인 등이다.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교육과 함께 한국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업은 입문·기초부터 초급, 중급 준비반까지 단계별로 운영된다.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고 말하기 시연과 팀워크 활동, 교재 수업 등을 병행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문화 체험이 학습 동기로

세종학당은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연계해 운영한다. 한국영화제와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부채춤, 태권도, 송편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다는 '코리안드림'에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기대까지 폭이 넓다.

특히 문화체험은 관심을 구체적인 학습 동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올 6월 한국 전통춤인 부채춤을 배운 학습자들이 직접 작품을 구성해 가족과 학부모를 초청한 참관수업을 열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화체험은 학습자를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게 세종학당 측의 설명이다.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특히 입상자가 한국에 초청돼 직접 한국문화와 사회를 경험한 뒤 돌아오는 사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책과 영상으로 접하던 한국을 실제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 유학으로 넓어진 진로

세종학당에서 시작한 한국어 학습은 일부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리가람 농업 교육에 한글 교육 결합
2022년 정식 위탁받아 총 531명 수료

음식 만들기부터 부채춤 · 태권도까지
한국문화 체험…한국 대한 관심 높여

유학 · 취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회
"한국 진출 돕는 취업 · 유학반도 구상"

아름다운동행 장학생으로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에릭과 아마니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리가람에서 농업기술을 익히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졸업 후 한국으로 건너와 학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 한국농수산대 글로벌 프로그램에 지원해 한국어 면접을 거쳐 선발된 힝기는 전액 지원으로 2025년 한국에 와 교육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보리가람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한국의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이후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탄자니아로 가져가기 위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보리가람과 세종학당의 결합이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농업기술 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체험까지 제공한다. 농업을 전공하던 학생이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도전하면서 진로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한국불교 만나는 또 하나의 통로

한국어 교육은 한국불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접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 불교계의 지원으로 설립된 보리가람의 특성상 학생들은 스님이 운영하는 선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배운 언어를 실제로 활용하곤 한다. 또 스님과 차담을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한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는 연등 만들기와 관욕식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의 문화와 의례를 접한다. 불교를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농업기술에서 시작된 배움이 언어와 문화로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불교와 만나는 셈이다.

다음 과제는 '취업'

세종학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한국어 교육을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와 연결하는 일이다. 보리가람을 졸업한 학생들이 현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직 제한적인 만큼, 언어 능력을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세종학당을 수료한 우수학습자 가운데 한국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직원들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이 다시 세종학당에 인력 채용을 문의하는 경우도 생겼다.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 성과가 다시 새로운 교육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다.

반면 보리가람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세종학당에서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지속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후속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세종학당 측은 향후 정부와 연계해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유학과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종학당의 지난 4년은 농업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에게 한국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유학과 취업 등 실제 진로로 연결하는 일이다.

농업기술에 한국어를 더하고, 한국어에 문화를 더하면서 탄자니아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 킬리만자로 아래에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 앞으로 어떤 인재와 교류의 길을 만들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 수강생의 20%는 인근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이다. 수업은 입문 · 기초부터 초급, 중급 준비반까지 단계별로 운영된다.



▲ 설날을 맞아 한복을 입고 보리가람 법인처장 선정 스님에게 세배하는 모습.



▲ 세종학당 학생들이 설날을 맞아 함께 떡국 공양을 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요소다.



◀ 세종학당은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연계해 운영한다. 사진은 태권도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



▲ 올해 상반기 60명이 수료했다. 하반기에는 100명이 수강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

"한국어 홍보대사가 꿈"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마리지아니 씨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한 청년이 한국문화 경연대회 우승을 계기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마리지아니 씨에게 한국행은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출발점이었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2022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온 마리지아니 씨는 한국문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24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참가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국립중앙박물관, 장안문, 롯데월드 어드벤처, 한강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경험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달라진 것은 언어 실력만이 아니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졌다.

2022년부터 한국어 공부 시작해
한국어 대회 1위…한국 연수도
"노력하면 된다는 자신감 얻어"

한국문화 경연대회 준비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마리지아니 씨는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특별한 미래 목표가 없었다. 외국어 공부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처럼 새로운 언어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기회와 시야를 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어의 가능성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 외국어, 특히 한국어를 배우도록 동기를 주는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보리수 아동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10월 중순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할 예정이다. 한국어 공부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제 진로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리지아니 씨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임은호 기자

인·터·뷰

"한국어는 더 많은 기회 만나는 문"

2026년 한국어 말하기 · 쓰기대회
우승자 **에녹** 씨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2023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온 에녹 씨는 최근 학당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쓰기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초청 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에녹 씨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특히 음식과 스포츠, 놀이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면서 건강한 생활 실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놀이와 스포츠 역시 관심 분야다.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공동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어 말하기·쓰기대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설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종학당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며 협력한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23년부터 공부…"포기 없어"
한국어 능숙히 말하는 게 목표
10월 중순 한국 연수 참가 기대

에녹 씨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언어를 배울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조금씩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

에녹 씨에게 한국어는 외국어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수단이다.

에녹 씨는 "한국어 공부는 다양한 사업·교육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문"이라면서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새로운 분야를 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대회 우승으로 에녹 씨는 10월 중순 한국에서 진행되는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참가한다. 교실에서 익힌 한국어와 문화를 현지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는 "한국 음식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96호 | 18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대구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외
- 매가 : 7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상남도
- 부지 : 10000평
- 법당 : 50평 외, 요사:60평 외
- 버스진입주차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 부근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내
- 규모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방2개
  거실, 주방 등
  밖에 컨테이너 1동
  바로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음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 가액 : 2억 5천(조정 가능)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청하면
- 면적 : 1500평
-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100평 (건축 조성 7년 되었음)
- 법구, 냉장고, 세탁기, 집기류 일체 보시합니다.
- 바다 인접, 교통편리, 주차장 500평
- 가액 : 10억원

스님 직접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0억원

010-4585-6807

사찰안내(임대)

-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공원 위(계단있음)
- 1층 2층 법당 각 40평씩
- 대지 98평 / 건물80평
- 방 5
- 보5000/월90(조율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03번지
- 대지 700평, 사용할 수 있는 밭 500평
- 건물 : 9동, 향토방 2동
- 차량진입, 주차장, 남향평풍처럼싸여 있고, 큰 비가와도 안전한 도량
- 자두, 매실, 감나무, 뽕나무, 돌배, 두릅, 머위, 고사리 등등 다용도 사용 가능
- 가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고성(창원 근접)
- 부지 : 359평(종교부지, 대지, 전)
- 건물 : 대웅전 10평, 삼성각, 종각, 요사채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수행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0-9227-4387

토 지 안 내

- 위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II

자연과 하나 되는 걷기 명상의 완성

뛰어난 기능성과 수행의 미학이 결합된 차세대 어싱 수행화 모델입니다.

Mesh Earthing Meditation Shoe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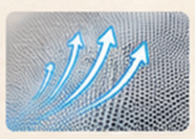
어싱(Earthing)
자연과의 연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자연 친화적 소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메시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

걷기 명상 최적화
자연을 느끼며 걸을 때 더 큰 평온을 선사합니다.

쾌적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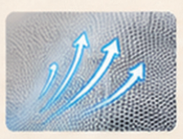
1. 뛰어난 통기성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고급 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행 중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설계로 맨발을 선호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3. 자연 통풍 구조
신발 내부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땀 냄새없는 착용감을 지속시킵니다.



4. 세련된 디자인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6㎜ 와이드 핏(Wide Fit) 미들사이즈
한국인의 발에 맞춘 넓은 발볼 설계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미들은 '와이드'와 '어반'의 중간 발 볼 넓이입니다.)

3㎜ 제로드롭(Zero-drop)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원터치 스토퍼(One-touch Stopper)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동일한 3㎜ 밑창으로 맨발처럼 균형 있는 보행과 자연 감각을 선사합니다.

어싱 레더 슈즈 와이드 리센스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클래치한 맛을 더한 와이드 리센스 모델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가 65,000원



베이지 블랙

수행의 길,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매일의 걷기와 수행이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발걸음, 삐바미가 함께합니다.

특별이벤트
어싱 양말 증정
신발을 2켤레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어싱 효과를 돕는 전용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센터 및 구매처
상담 전화 1688-9099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6-429749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시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주문/상세 정보 QR코드

자연을 밟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96호 | 19 | 전면광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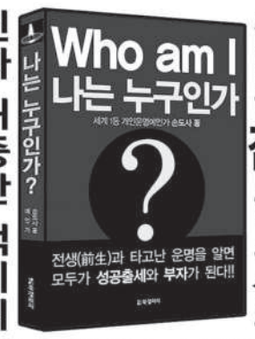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진짜 귀중한 책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경북 안동 사찰 좋은 인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576-4450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사찰 인수자 연락 요망(전월세 가능)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대인관계에 고민과 근심, 성공과 실패를 해명해 줄 수 있는 책은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책뿐이다"

서경철학관 | 약 50년의 연구 임상체험 담긴, 정확도 70% 이상의 명쾌한 인생 지침서



철학원, 영험하신 무속인, 혜안이 높으신 스님들조차 신도나 문복자가 찾아와 **한 해의 길월과 흉월 그리고 한 달의 길일과 흉일**을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주팔자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명쾌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역(육효)의 용신생극으로 풀어내는 인생 해답

재물운 | 사업운 | 매매운 | 승진 | 합격 | 궁합 | 결혼운 | 택일 | 이사방향 | 개업방향 | 한 해의 길월·흉월 | 한 달의 길일·흉일

❖ 도서 구성 및 학습 안내 (한글만 알면 누구나 독학 가능)
책 구성 | 주역 부문 : 총 127문답 구성 (기초 이론 12p)
사주 부문 : 총 120개 구성 (기초 이론 40p)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
큰 글씨로 시력의 불편 최소화

❖ 저자가 전하는 확실하고 쉬운 학습 방법
주역이든 사주든 책에서 "기초에 암기하라고 지정한 내용"의 60%만 우선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해명법사(解明法師) 김서경(金抒經)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김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 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 출간.

판매처: 010-3341-4867 | 판매가: 택배비 포함 55,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검색_서경철학관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7길 64 (102호)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종교법인 약 천 사

- 빙의 퇴마
- 최면 치유
- 기공 치유
- 염력 치유
- 자극요법 치유

- 우울증
- 불면증
- 약물중독
- 공황장애
- 확실한 치유

*기술전수 합니다. *중매상담(무료)

약손 현오 스님
예약 직통 010-7170-5508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43-10

‘지역문화주권’ 인식 확산…‘환지본처’ 이어진다

성보유랑 聖寶流浪

⑦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보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공간을 장엄해 온 성보문화유산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문화주권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추진되며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가장 먼저 이전 소식을 알린 것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관내 야외정원에서 전시 중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을 경기도 여주시 고달사지로 현지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3만여 원에 팔린 석등 ‘제자리로’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으로 아래 받침돌 대신 두 마리의 사자를 앉혀놓았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위로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조선시대 고달사가 폐사되며 잊혀졌다. 근대에 이르러 다시 확인됐을 때에는 폐사지에 무너진 상태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지정에 앞서 석등의 부재를 마을 주민에게 맡겼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잊혀졌다.

그러다가 부재를 맡았던 마을주민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1957년 서울 종로 동원예식장 대표에게 3만8000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이를 모르던 정부는 1958년 석등을 보물로 지정했고 뒤늦게 석등이 팔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정부는 석등 회수에 나섰고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석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유산청, 여주시 등 여러 관계기관과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박물관의 대표적인 야외 전시 유물로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았던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원위치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석등을 최상의 상태로 현지로 보내기 위해 지난 4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분과에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보존처리 및 분석 등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처리 및 분석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후에 현지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여주 고달사지로 완전 이전되면 향후 관리는 여주시가 맡게 된다. 구체적인 이관 시점은 향후 보존처리와 종합보고서 발간 시점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人 정원 장식품 ‘승탑’ 유랑 종결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보물)’도 본래 절터로 돌아가는 성보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이전을 위한 세부계획과 이전 예정 지역의 정비 사업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돼 있는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해체 절차를 거쳐 본래 자리인 거돈사지로 돌아간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돈사지는 원주 현계산 기슭의 절터로 신라 후기인 9세기에 창간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굴조사를 통해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됐는데, 금당의 규모는 앞면 5칸·옆면 3칸으로 2층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대찰로 성장한 거돈사는 고려 초기 불교계의 중심이었던 법안종의 주요 사찰이었지만, 고려 중기 천태종이 유행하면서 천태종 사찰로 흡수됐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고려시대 승려 원공 국사 지종(930~1018)의 사리탑이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탑비의 건립은 ‘태평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 중인 고달사지 석등, ‘환지본처’ 추진
보존처리 후 고달사지 이관키로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이전 계획
내년 개관 충주국립박물관으로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등 옮겨져
“문화유산 본 자리 있어야 의미”

을축추칠월(太平乙丑秋七月)’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고려 현종 16년(1025)에 해당하므로 이 사리탑도 그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8각 사리탑으로, 모양이 단정하고 아담한 통일신라 탑의 양식을 이어받아 조형의 비례가 좋고 중후한 품격을 풍기며 전체에 흐르는 조각이 장엄해 한층 화려하게 보인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다. 1910년대 일본인이 자신의 집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로 무단 반출했고 해방 후인 1948년 성북동 어느 저택에서 발견돼 경복궁으로 이전됐다. 1968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일반적으로 승탑은 탑비와 짝을 이루는데 원공국사탑은 원주 소재 탑비와 100년 가량 떨어져 있는 셈이다. 현재 승탑이 있던 자리에는 국가무형유산 석장 이재순 보유자가 조성한 재현품이 세워져 있다.

원래 자리는 아니지만 문화유산이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내년 개관하는 국립충주박물관에는 국보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과 보물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비’, 보물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등 3점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보물)’ 등과 같은 ‘현지 이관’이 아닌 ‘임시 이관’ 형식으로 본래 소재 지역이나 인접 국립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유산 접근 및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 이관’ 환지본처 선결 요건은

앞서 제자리를 찾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부터 환지본처가 추진되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은 모두 공통점이 존재한다. 환지본처를 위한 선결 요건들을 충족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한 선결 요건은 △출토지 확실 △원위치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관리 △관리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할 것 △전시와 관리의 안전이 담보될 것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춰 원형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과학적 정밀조사 선행 등 총 5가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현지 이관 원칙에 대해 “모든 유물이 현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문화유산의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선결 조건을 갖춘 뒤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경우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이 완료되면 원형 그대로 현지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 갈항사지 동·서탑’의 환수를 위해 김천시가 갈항사지 일원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다.

이 같은 문화유산들의 지역 환지본처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15일 발표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협약을 통해 이행을 지원한다. 고유한 지역문화자산의 보존·활용과 지역 주도 콘텐츠 육성 역시 주요 과제다.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주민과 함께 기록·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자산을 문화기획과 창작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지역문화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지역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최근 성보의 환지본처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지만 늦게나마 추진돼 다행”이라며 “아직 돌아가지 못한 문화유산들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은 그 유래지와 출처지의 역사, 지역 공동체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밝힌 이 이사장은 “지역문화주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관련 문화콘텐츠 산업을 촉발하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화유산 반환은 가장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유산은 제 자리에 있을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된다”면서 “박물관의 전시물로 전락한 문화유산을 각 지역의 ‘대표 유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환희의 비천벽화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⑱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

비천, 하늘의 극예술인

비천은 천상을 나는 하늘 사람이다. 엄숙한 공간에 천의를 나부끼며 출현하는 비천의 장면은 환희와 경이로움으로 이끈다. 부드러움과 유려함으로 신심을 북돋우는 묘한 작용력이 있다. 비천이 출현하는 곳은 곧 환희의 공간이고 지극한 즐거움의 공간이고 상서로움의 공간이며 법열의 공간이 된다. 비천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기쁨과 환희, 성스러움의 세계로 이끈다. 불교장엄에서 비천은 환희와 상서의 자리에 어김없이 출현한다. 미묘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하늘의 꽃을 뿌리기도 한다. 비천은 부처님의 진리 설법에 감응한 성중의 환희심을 드러내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하늘의 극예술인들이다.

불교 경전에서 표현하는 천상의 음악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천(諸天)의 연주, 곧 비천에 의한 기악 연주의 공양이고, 다른 하나는 〈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에서처럼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천악 불고자명(天樂 不鼓自鳴)'의 방식이다. '불고자명'은 연주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울린다는 의미다. 비천은 부처님 진리 설법에 대한 환희와 공양 예경의 주체이고, 저절로 울리는 음악은 불국토 장엄으로서 법음의 현현과 다름없다. 불국토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이나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에 그린 악기벽화처럼 주악비천 없이 악기만을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무량수경〉에 그 대목이 나온다. '유악기현처허공 여천보당 불고자명(有樂器懸處虛空 如天寶幢 不鼓自鳴)'. 악기가 허공에 매달려 있어 하늘의 보배 깃발과 같으며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린다는 것이다. 또한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그 모든 음악은 극락정토의 불국토 장엄으로서 불·법·승 삼보를 예경하는 염불·염법·염승의 작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경전에서 비천이 등장하는 대목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법화경〉의 제23 '약왕보살본사품'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불교조형에 나타나는 여러 비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천 작천기악 가탄어불, 이위공양(諸天 作天伎樂 歌歎於佛, 以爲供養)'. 즉 하늘의 천인들이 천상의 기악을 연주하고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며 공양 올린다고 적고 있다. 여러 천인이 하늘의 악기를 연주한다는 '제천 작천기악(諸天 作天伎樂)'의 표현은 〈관무량수경〉의 제6관 '보루관(寶樓觀)', 〈법화경〉 제7 '화성유품', 〈대반열반경〉 등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데 그 표현은 경전에 사용하는 거의 관용어에 가깝다.

경전 속 제천(諸天), 곧 비천은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악기 연주의 기악(伎樂). 둘째,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가탄(歌歎). 셋째, 공양(供養). 그에 따라 불교 장엄예술에서 비천은 통상 세 부류로 표현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 음악과 춤사위를 펼치는 가무비천, 과일이나 꽃, 향, 차 등의 육법공양을 올리는 공양비천, 그 셋이다. 그것은 부처님 진리 설법 공간에 펼치는 악(樂)과 가무(歌舞), 공양(供養)으로 이어지는 의례와 상통한다.

기악 7, 가무 3, 공양비천 1점

법당 천정에 아름다운 비천벽화가 현존하는 곳은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을 비롯해서 합천 해인사 명부전, 대구 동화사 영산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등 20여 곳에 이른다. 그중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비천벽화는 크기나 역동적인 묘사, 구성, 채색 등에서 단연 시선을 끈다. 종교장엄의 성스러움과 규모, 섬세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화면 구성, 예술적 미 등을 두루 갖춰 한국산사 비천벽화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천은 기악·가무·공양의 천인
천정의 비천벽화 전국 20여 곳
가무, 공양비천 손에 한삼 착용
비천, 진리 설법에 환희심 표현

완주 송광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후인 1622년에 세웠다. 2층의 중층건물이었다. 1814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수 중건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줄여 지었다. 대웅전의 안둘렛기둥 영역의 중심부 천정은 우물반자이고 밭둘렛기둥 영역의 가장자리 천정은 대여섯 널판으로 길게 엮은 대형의 빗반자이다. 남측면과 동서측면 가장자리 빗반자천정에 11점의 비천벽화를 베풀었다. 비천벽화를 그린 시기는 1857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송광사 대웅전 중건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1857년에 대웅전 마지막 중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빗반자에 그린 비천벽화는 모두 11점이다. 정면 남측면에 7점, 좌우 동서측면에 각각 2점씩 그렸다. 하나의 화면은 대여섯 장의 널판으로 구성했다. 한 화면 크기는 가로 1.2~1.5m에 이르고, 세로는 1.6m로 거의 같다. 주악, 가무, 공양비천 모두를 표현하였다. 기악비천은 7점, 가무비천은 3점을 그렸고, 공양비천은 1점만 그려 배치했다. 11점 비천의 구성은 〈표〉와 같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악비천(횡적).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 중 가무비천과 공양비천.

	벽화 개수	소재 구성
기악비천	7	장구, 북, 비파, 긴 나발, 횡적(2), 바라
가무비천	3	소매에 한삼 끼워 펼치는 역동적 춤사위
공양비천	1	보주 공양

〈표〉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빗반자천정의 비천벽화 구성

열한 분의 비천 중에서 열 분은 여성이고, 횡적을 머리 위로 지켜 들고 흰 소맷자락을 펼치고 있는 기악비천 한 분만 남성이다. 성별의 차이는 머리 장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다른 모든 여성 비천은 깃을 꽂은 전립을 쓰거나 갖은 장신구로 꾸민 귀부인 머리, 또는 둥근 고리를 가진 선녀 머리 등으로 머리 꾸밈을 하였지만 남성적인 그 한 분만 초록 적삼의 평민복 차림에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허술한 민머리를 하고 있어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비천벽화에선 정재(呈才)나 의식무에서처럼 성스러운 자리에서 펼치는 가무 공연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연주의 특성상 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기악비천을 제외하고는 가무비천, 공양비천은 손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맷자락에 덧대거나 손목에 끼워 소매를 길게 확장하는 한삼(汗衫)을 착용하여 손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손목에 착용한 한삼은 팔동작인 춤사위를 보다 우아하게 연출하는 효과와 함께 신체가 노출되지 않는 신중한 몸짓으로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는 극진한 예경의 태도도 갖추게 한다. 보주를 공양 올리는 공양비천이 소매에 흰색 한삼을 갖춘 것도 부처님께 헌공하는 극진한 예경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국산사 비천벽화 대표할 걸작

완주 송광사 대웅전 비천벽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역동성에 있다. 전통 가무에서 살아 호흡하는 춤 선을 펼치기 위해서는 깊은 굴신(屈伸)과 발의 디딤새, 손동작 등은 필수적이다. 벽화에선 허공의 자유로움만큼이나 다양한 굴신과 디딤새, 손동작을 펼치고 있어 놀라울 지경이다. 몸을 클 대(大)자로, U자로, L자로, 유영하는 인어 형상으로, 의자에 앉은 듯한 자세 등 저마다 자유자재다. 굴신의 폭이 깊고 크다. 굴신의 뼈대엔 힘이 흐른다. 게다가 발의 디딤새는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른 듯 역동성을 더한다. 중심이 단단한 뼈대의 등걸에서 부드러운 꽃이 피듯 춤사위가 바람을 탄다. 가볍고 자유롭다. 춤사위와 기악의 선율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우아하게 너울댄다. 덩달아 긴 천의 자락과 한삼을 덧댄 소맷자락이 혼연일체로 풀어진다. 벅찬 환희의 선율, 환희의 춤사위가 덩실덩실 신명을 타는 극적인 장면을 그렸다. 태극 속의 음양처럼 힘과 부드러움이 조화로운 명작 벽화들이다.

그런 명작 중에서도 정면 남측면의 벽화 한 점은 특별히 탁월하다. 대웅전 내부에서 남측면 벽화를 바라볼 때 향우측 빗반자에 조성한 주악비천벽화가 그 주인공이다. 긴 횡적을 불고 있는 주악비천벽화는 한국산사 비천벽화를 대표할 만한 걸작이다. 동양회화의 핵심원리로 삼는 경영위치(구도), 응물상형(묘사력), 수류부채(색채), 기운생동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다.

주악비천은 특별히 고고한 의장까지 두루 갖췄다. 머리엔 화려한 깃을 꽂고 영락 구슬로 장식한 끈을 갖춘 전립을 썼다. 한쪽 무릎은 펴고, 한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허공에 비스듬히 누워 유영하는 자세로 악기를 불고 있다. 천인의 손목에는 신령한 기운이 구름처럼 자욱하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도 바람을 탄다. 자태는 티 없이 맑고 청정하다. 아름다움의 아우라까지 갖춘 희유의 주악비천이다.

목과 손목, 허리에 천의 자락이 우아하게 휘감겨 바람에 펄럭인다. 화면에 충만한 율동적인 천의 자락은 곧 음악 선율의 시각적 표현과 다름없다. 우아한 천의 자락은 음악 선율의 시각화이고, 음악은 부처님의 진리 설법과 자비에 감응한 중생들의 벅찬 환희심을 예술장엄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종교와 예술이 만나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엄예술의 명작이 탄생하곤 한다. 완주 송광사 비천벽화가 그런 사례다.



노재학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거친 말에는 소도 움직이지 않는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⑩ 친절한 말 : '황소 난디비살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은 매우 다르다.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심과 정성을 다해 말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말을 잘못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말의 진정성과 태도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험악한 말이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너무 거칠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요즘에는 상대 당을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어른들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욕설 경연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다.

몇 해 전 EBS에서 어느 학교를 찾아가 욕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지 실험한 적이 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이 빠지니까 어색해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상황도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의 욕설이 생활화된 것이다. 어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기분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쥐에게 사람의 침전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이었다. 인간이 평소 말할 때는 무색의 침전물이 나오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분홍색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욕할 때는 갈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모아 쥐에게 투여했더니 곧바로 죽고 말았다. 이처럼 욕설은 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해로운 물질이었다.

불교에서도 악구(惡口), 즉 욕설이나 험한 말을 매우 경계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불교 동화를 찾아보았더니, '난디비살라 자타카(Nandivisāla Jātaka)'가 있었다. 부처님은 평소 싸움과 욕설을 자주 하는 여섯 명의 비구를 불러 거친 말을 하면 축생도 싫어한다면서, 자신이 황소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간다라국에서 황소로 태어난 난디비살라에겐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브라만 출신의 주인이 있었다. 그는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한 어린 황소를 구해 마치 친아들처럼 정성껏 키웠다. 어느덧 힘과 지성을 모두 갖춘 성년 황소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마을 부자에게 가서 나의 황소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끌 수 있다고 말하고 내기를 하십시오."

황소의 말에 따라 주인은 부자에게 제안을 했고, 그는 세상에 그런 황소가 어디 있냐면서 내기를 받아들였다. 내기에 걸린 돈은 천금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브라만은 백 대의 수레에 모래와 자갈, 돌을 한가득 싣고 황소를 목욕시킨 다음 그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진 탓인지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면서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기꾼아, 가자. 사기꾼아, 가자."

친절하던 평소의 모습과 달리 주인이 폭언을 쏟아붓자, 이에 상처받은 황소는 발을 땅에 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내기에서 진 브라만은 큰 재산을 잃고 말았다. 울고 있는 주인에게 다가가 황소가 말했다.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누구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에 대소변을 눈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까?"

주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황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과를 받은 황소는 주인에게 이번에는 내기 돈을 2천금으로 올리라고 말했고 마을 부자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다시 시합이 이어지고 100대의 수레를 연결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착하고 소중한 내 소야, 가자. 착하고 소중한 내 소야, 수레를 끌어라."

폭언 듣고 움직임 멈춘 황소 이야기
욕설 잦은 여섯 비구에 전한 가르침
옳고 필요한 말도 친절해야 설득돼
거친 말은 결국 자신을 먼저 다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품격

그러자 황소는 단번에 100대의 수레를 끌었고 내기에서 이긴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다. 친절한 말을 들은 황소 역시 이름에 어울리는 '큰(visāla) 기쁨(nandi)'을 주는 존재로 돌아왔다.

바보야, 문제는 친절한가야

황소 이야기를 읽으면서 최근 부끄러웠던 내 행동이 떠올랐다. 얼마 전 가까운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다. 의견이 서로 달랐을 뿐인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큰소리로 말한 것이다.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느낀 점이 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논리적이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 부당한 권력을 앞세워 힘없는 개인을 괴롭힌다거나, 나치 혹은 파시스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도 좋다. 불의를 향한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큰소리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동화에서 본 것처럼, 은혜를 갚으려는 황소조차 주인의 험악한 말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황소를 움직인 것은 거친 말과 채찍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친절하고 고운 말이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작가의 말에 공감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말과 행동에 거침없던 자신에게 어느 어른이 꼭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첫째로 옳은 말인가, 둘째로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옳고 필요한 말도 태도가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일 공감했던 지점이 바로 세 번째인 친절한 말이었다. 얼마 전 내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정의롭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며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었다 해도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친절한 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방송한 작가 역시 요즘 친절하지 않은 말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역시 머리로 안다고 해서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험악한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상처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친다는 사실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피를 머금고 사람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含血噴人 先汚其口)."

몇 해 전 인문학 강좌로 〈명심보감〉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학인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대목이기도 하다. 남을 해치기 위한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 모든 성현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숫타니파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도끼는 본래 나무를 잘라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다. 그런데 조준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입안의 도끼 역시 마찬가지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은 상대를 기쁘게 하지만, 험악한 말은 모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 마음공부 잘해서 지혜가 깊어지면 '문수보살 게송'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읽을 때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된다. 정호승 시인은 '벗에게 부탁함'이라는 시에서 "벗이여 / 이제 나를 욕하더라도 / 올봄에는 / 저 새 같은 놈 / 저 나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이 시를 인용해서 본지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글을 읽은 어느 학인이 욕하고 싶을 때면 마음을 꾹꾹 다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저 문수 같은 놈.'

이런 욕이라면 매일 듣고 싶을 것 같다. 욕이 아니라 칭찬이니 말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언어가 단순한 정보나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라는 뜻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이의 품격인 셈이다.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을까? 비난보다는 칭찬을, 거친 말보다는 친절한 말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하나를 더해야겠다. 거친 말에는 소조차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눈앞의 일이 급한데 관하라시니

질문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 주인공에 관하라 하시기만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답변 이 세상에는 어느 집 쳐 놓고 문제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천에 달해요. 자기가 한 거만큼 그것이 그냥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이건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런 문제, 또는 유전성, 인과응보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인연, 그 인연줄을 끊지 못하고 얽히고설켜서 앨 쓰는 걸 많이 봅니다. 이건 다 누구의 짓입니까. 다 자기가 한 것만큼입니다.

모든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어떤 우환 가환, 또 병도 그래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인간의 의학으로써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까닭에 그런 걸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끊어 주는 게 급하기 때문에 자기 근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르고 "나는 지금 급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어서 왔는데 주인공 찾으래.", "저이는 저 남의 급한 걸 모르니깐 그렇지. 그래, 저 말이 나와?"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당신네들이 모르니깐 그럽니다. 모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게 되면 바로 우환, 가환, 병 이런 모든 것을 거기 용광로에다가 놓는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릴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그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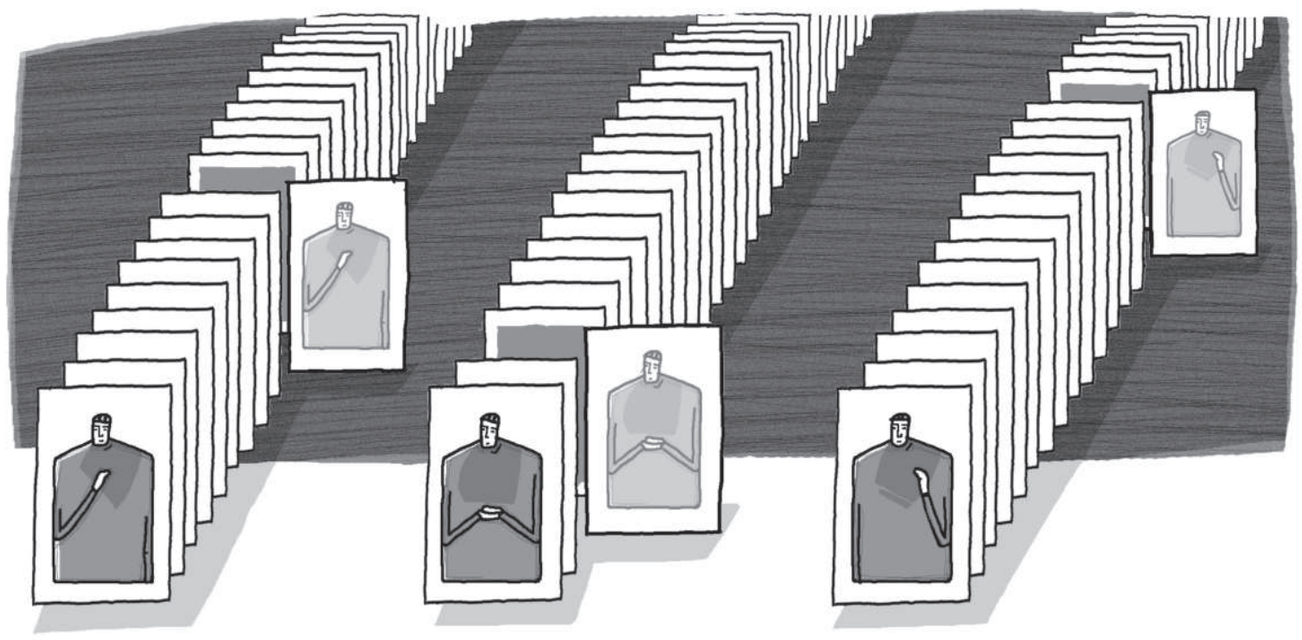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물론 나부터라도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냐고. 아니, 그게 바로 공부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 그것이 녹아 버리지, 만약에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 년 동안 앉아서 고행하실 때 그 모두 항복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복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시고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받은 거라 이겁니다.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거죠.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탄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온 거고, 무슨 이유가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그러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렇게 내놔야 그것이 아주 철두철미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철두철미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미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미한 겁니다. 내가 안으로 눈이 밝고 청림해서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내가 부릴 줄 알고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미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이 자원에 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그런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믿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여러분은 낱낱이 생각해서 참 주저주저하고 '야, 이렇게 된 도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거 조금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겁니다.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걸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아이구,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하고 어느 때 보니까 항상 봄처럼 웃고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탄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진짜로 주인공이 모든 업보와 그 인과응보와 유전을 다 녹여 주고 삶을 보람 있고 생동력 있게 끌고 가는 바로 길잡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비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질문 이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신에게 구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다른 종교인들처럼 부처님께 빌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인지요.

답변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인 까닭에 어느 한군데 종교로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버스라면 그걸 공기 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 주머니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습니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 가지고 네 종교가 어떠니 내 종교가 어떠니 하고 탄압하고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이라면 어찌 한세상을 폭넓게 위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

☞ 24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믿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3면에서 계속

지마는 생명체란 고교한 겁니다.

이 기복으로 믿다 보면 전부 헛다리 짚는 셈이에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한테 에너지를 좀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해 보세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보내 줄 수 있나요? 그 나무는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하겠죠. 그러니깐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 허공 가운데 연꽃이 핀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전에는 대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왜 이 법회를 하느냐고 이런 스님네들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죠. 나를 내가 건지는 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그 모습을 다 버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잡고 가려고 돈을 아낍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컵에 물 한 잔을 남에게 줬다면 반드시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것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에.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 안 주고 물건 그냥 주는 거 못 보셨죠? 또는 돈을 안 주면 물건도 안 내놓죠. 그런 거와 같이 주는 사이도 없고 받는 사이도 없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한 생각을 항상,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보시했다 이런다면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보시한 대가는 벌써 나한테 오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거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게, 세상도 벌어지고 가정도 있는 거고 자식도 있는 거고, 모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모습, 내 나무는 내 뿌릴 믿어야만이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거기에 관하니까. 믿으니까.

어디가 아파도 내 마음이 더 잘 알죠? 아프다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벌써 거기서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교하고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뭘 좀 달라고, 뭘 좀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옳겠습니까? 자기는 쑥 빼놓고, 자기 운전수는 쑥 빼놓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들러붙은 마음이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주인공에게 관하긴 하지만 자식에게 들러붙은 마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인가요.

답변 이 마음이라는 게, 빛은 가다가도 어떠한 연고가 생기지만 마음은 은산철벽도 뚫을 수 있고 어디로든, 남의 마음으로 같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이 정히 안됐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바로 내가 남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째 나만은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마음의 조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죽일 것도 아닌데 죽이거든요, 또. 이게 마음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고가 있느니 집착이 있느니, 그게 고와 집착만 없으면 멸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집착,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고 그렇다면 고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서 '고'라고 하는 거지.

보세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를, 기껏 그냥 흘러갈 거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럭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강물이 흘러가다가도 그냥, 그냥 가서는 걸려 버려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왜 안 되겠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것 들었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것 했으면 저것 해야 하고 이게, 매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고정됨이 없이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벌써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로 과거로 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요, 자꾸. 여러분이 살면서 붙잡는 게 고(苦) 인(因)이에요. 잘되는 건 붙잡지 않는데 잘못되면 더더욱 붙잡고 늘어져요. 아, 좀 느긋하게, 어떠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좀…. 나무가 자기 뿌리 없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야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자기 뿌리는 얻다가 팽개치고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나요? 이 나무가 저 나무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될까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마구 붙들고 그래 가지고선 그릇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다 놓고 가는 건데 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놓게 되면 그냥 저절로 풀려서 돌아갈 걸 외려 붙들어서 풀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도 없고 아주 어려워서 죽겠으니깐 나더러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보지를 않고 이럭하니 우리가 애들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버리고 길바닥에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내가 우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나 보여요. 세상에, 저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저렇게 아무 데서나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절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건 드물죠. 그러자 그 사람은 부모가 찾아서 다시 그 회사에 아들을 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깐 마음과 마음의 인연도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하죠. 마음은 빛깔도 없고 잠글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음파가 전도되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즉 말하자면 사람의 에너지도 전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면 외국에서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서 하혈이 되는 걸 모르고 인제는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게 말로 할 일입니까, 그게? 이건 내가 잘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실험해서 살아나가는 데에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알았어." 이럴 수밖엔 없죠. 하지만 "알았어." 할 때 그 에너지는 전도가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자기가 몇만 개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지금 땅덩어리에서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원이 높아져야 차원이 높은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차원이 높아지고 그러는 반면에 높은 데로 걱정 없이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 소립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질문 저는 아만심이 강해서 그런지 상대와 마찰이 생기면 말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왜 이런 게 있지요? 그 속으로다가 '아이구, 저놈이 저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어요. 꼭 사정이 있단 얘깁니다. 이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식하고나 부부지간이나 부모지간이나도 말을 해서 놓으면은 이것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말은 없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이것을 그냥 꾸욱 웅크려 물고선 그거를 아예 풀질 못하고 있으면 영 그게 착이 되고 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게 다 병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웃으면서 말을 이렇게 해 버리는, 그 함이 없이 하는 말,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웃으면서 그냥 하면은 그쪽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던 거야." 하고 말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 생각만 했지 남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한 번쯤 돼 보고 다시 한번 안으로 굴려서 좋은 말로 옮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앞날이 밝아지지, 거죽으로만 '얘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말이 많고,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오히려 비뚜로 나가는 수가 100% 될 수가 있죠. 남편도 자꾸자꾸 이것을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삽니까."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오히려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햇빛을 따뜻하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가장 그냥 강하게 추위가 오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덥게 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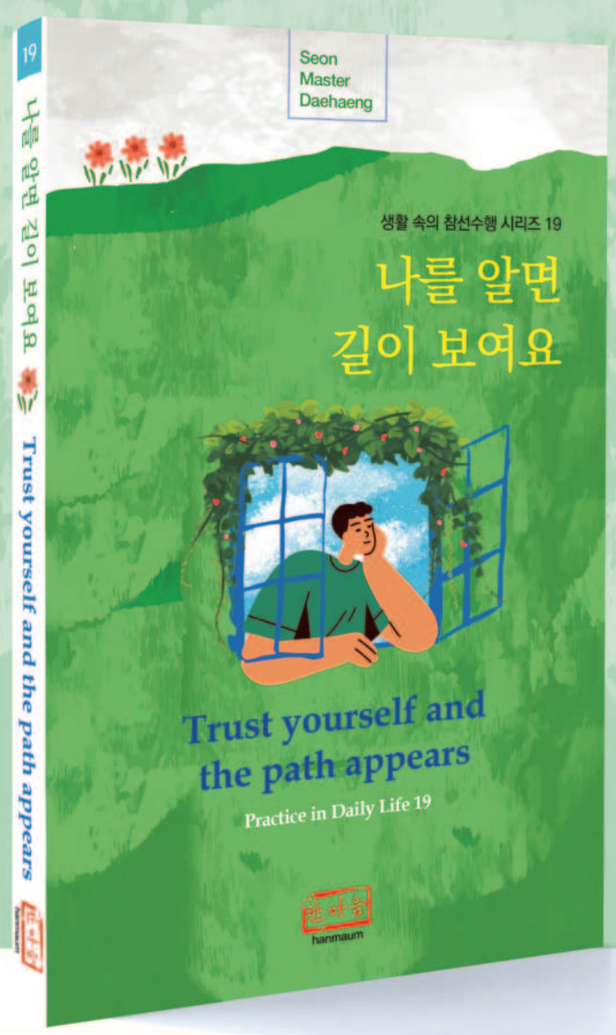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 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남편이 어떡할 때 내가 한번 바꿔서 남편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 그래야 모든 걸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 이게 시급한 겁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⑰ 과다한 책임감의 멍에 내려놓기

“가족들이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여·65세)은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후 세계 각 나라를 여행할 만큼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어르신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담 초기 본인 이름 외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로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며 철저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유년 시절부터 억압과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화를 잘 내는 엄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나이 차가 많은 연상의 아버지와 결혼해 평생을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편에게 존칭을 써가며 무조건 희생하던 가부장적 위계와 가정에서 자녀들을 차별하던 숨 막히는 환경은 어르신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에 맺힌 한은 한의대를 졸업할 정도로 총명했던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동생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르신은 동생의 자살이 집안의 흠이 될까 두려워 원치 않는 결혼마저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심각한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수년간의 재판 끝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은 한 번에 대여섯 가지 일을 억척스럽게 해내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왔습니다.

자녀들의 원망과 비난의 늪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어르신의 노년에 남은 것은 자녀들의 비난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중년에 들어선 아들은 대학도 중퇴하고 직업도 없이 어르신에게 기대 살고 있었고, 딸은 임신과 가정폭력 끝에 이혼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처지를 어머니에게 전가하며 폭언을 퍼부었고, 지인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상습적으로 구타했던 과거의 폭력성을 안은 채, 이제는 독립하기 위한 생활비를 자신에게 달라며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13살 손주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딸이 손주를 방치하고 폭행하자, 어르신과 아들이 손주의 양육을 떠안으며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형적인 삼각관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족의 비극과 과다한 책임감

어르신은 사회적 관계와 가정 내 관계를 철저히 이원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나를 다 좋아하는데 유독 가족들만 나를 이상

자녀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 갇힌 삶
과다한 책임감, 원초적 죄책감 때문
업 원리 자각하며 멍에 내려놓을 때

하게 본다”며 억울해했지만,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어르신의 내면에는 억압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딸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면서도 손주를 차마 놓지 못하고 책임감에 묶여 있던 진짜 이유는, 과거 벼랑 끝에 몰렸던 동생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원초적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오래된 슬픔이 무의식 중에 상처 입은 딸과 아픈 손주를 향한 과도한 보상심리와 과책임감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내가 다 해버려야 한다”는 어르신의 완벽주의적 행동은 정작 고독과 고통 속에 머무르던 딸의 아픈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는 차가운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살한 동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로소 눈물을 쏟아내신 어르신은 “나 역시 너무나 우울했다”며 평생 두르고 있던 내면의 갑옷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삶의 몫 인정하고 자유로워지기

어르신은 가족들의 모든 불행과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고 해결하려다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초기 불교의 대표 경전인 〈증지부〉(增支部, Anguttara Nikaya)에 부처님께서는 업(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업이 곧 그들의 모태이며, 업이 곧 그들의 친지이고, 업이 곧 그들의 의지처이다. 그들이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지으면, 마땅히 그 업의 상속자가 되리라.”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해도, 성인이 된 자식의 삶과 고통, 그리고 손주의 인생까지 대신 짊어지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동생의 비극적인 죽음도, 자녀들이 겪고 있는 방황과 이혼의 상처도 결코 어르신 한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자 통과해야 할 삶의 무게이자 업의 과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다한 책임감’은 자비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집착의 굴레일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든든한 보조자의 자리를 지키는 건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몫은 그들에게 돌려주고, 평생 홀로 짊어져 온 무거운 멍에를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가족을 위해 정작 돌보지 못했던 어르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여생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일깨워주신 지혜이자 어르신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해탈의 길일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㊶ 알부민 열풍

알부민 수치가 낮아졌다면

“그…, 책 내신 약사님 맞지요?”

“네. 현대불교신문 연재 칼럼을 엮은 〈어서 오세요. 희망약국입니다〉라는 책을 냈지요.”

“그거 보니까 약국 올 때 건강검진표를 들고 오라고….”

“잘 읽어보셨네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결과표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어요?”

“알부민 수치가 이상해. 낮게 나왔더라고. 나 알부민 먹으면 수치가 올라갈까? 아들은 먹지 말라던데. 효과 없다고 뉴스에 났다고.”

작년 가을부터 알부민은 대한민국 영양제 시장을 들썩이게 한 이슈 중 하나였다. 종편이나 홈쇼핑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알부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먹는 알부민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돼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많아졌다. 알부민을 먹으면 피로 회복, 면역 기능 개선, 부종 개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제품은 완판을 거듭했고, 올해 초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알부민 제품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야말로 대(大)알부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알부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시중 판매 알부민 제품 대부분은 혼합 음료나 액상 차 등으로 분류되는 일반 식품이다. 이런 일반 식품을 피로 회복, 면역 기능 강화, 간 기능 개선 등 의학적·기능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혹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알부민 제품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알부민이 아니라 함께 들어 있는 다른 기능성 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일 것이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알부민의 기세가 어느 순간 달라졌다. 올해 3월 대한간학회가 먹는 알부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이 알부민 제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여기에 식약처의 부당 광고 단속 소식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급격하게 식어버렸다. 이에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처지가 됐다. 건강검진표에서 흔하게 접하던 알부민이라는 익숙한 의학용어가 가진 권위가 어느 순간 일반 식품에 전이된 셈이다.

그렇다고 약국에서 구매했던 알부민 영양제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계란 흰자를 탄 물’이었다고 생각할 필요까진 없다. 실제로 필자의 약국에도 알부민 제품이 있다. 성분을 살펴보면 알부민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태반, 녹용, 로열젤리, 타우린 등 다른 좋은 영양성분들을 함유해 실제로 먹었을 때 몸이 가뿐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문

시중 제품 대부분 건기식 아닌 일반 식품
혈중 수치 저하 원인 살펴 적절 대응 중요
간편 영양 보충제 필요 시 약국 제품 대안

제는 그것을 마치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알부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다. 먹는 알부민에는 죄가 없다. 그걸 교묘하게 주사로 맞는 혈청 알부민과 혼동하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였을 뿐이다. 그럼 다시 손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건강검진 결과 알부민 수치가 낮을 때 먹는 알부민으로 보충하면 될까?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이다. 따라서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왜 낮아졌나”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진 이유는 첫째, 간에서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경우, 둘째, 신장이나 장을 통해 알부민이 자꾸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셋째, 염증이나 다른 질환의 영향으로 혈중 알부민이 감소하는 경우, 넷째, 실제로 단백질이나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다.

이 가운데 마지막 경우처럼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먹는 알부민 같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간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신장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심한 염증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검사 수치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검사에서 알부민이 낮다는 것은 원인을 찾아보라는 신호이지, 알부민을 사 먹으라는 신호는 아니다. 알부민을 먹는다고 그대로 혈청 알부민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알부민 제품을 먹어야 할 이유도 없다. 계란, 우유, 두부, 생선 같은 일반 단백질 보충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매번 식사를 챙기기 불편하고 번거로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보충 제품을 찾는다면, 약국의 알부민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자, 손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병원에서 다른 검사 결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응,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살 많이 빠졌지. 얼마 전 수술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근육이 다 빠졌는지 살이 안 찌네.”

“그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근육량을 늘리고, 수술 후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소 단백질 풍부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그게 번거롭거나 불편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보충 제품을 찾으신다면 알부민 영양제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사 먹으라는 거지?”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다시 걷는 날만 기다리는 86세 네팔 어머니

“어머니가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벅지뼈 골절 수술 후 혼자 걷지 못하는 라마 씨
홀로 아들 키우는 딸, 생계와 간병까지 떠안아

병원비 1500만 원…상당액 친구에게 빌려 마련
모녀가 다시 일상을 찾도록 불자들 자비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우리 복지관은 지금 18. 영등포구1인가구지원센터

함께 달리며 일상에 관계를 더하다



'01러닝클럽' 참가자들이 달리기에 앞서 전문 강사와 함께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

요즘 SNS에서 '러닝크루'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함께 뛰며 성장을 도모하는 모습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운 만큼 관계가 옅어지기 쉽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영등포구1인가구지원센터는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러닝을 복지 사업과 접목해 '01러닝클럽'을 만들었다.

'01러닝클럽'이라는 이름에는 소박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0'은 영등포구를, '1'은 1인가구를 뜻한다. 영등포구 1인가구를 위한 러닝 모임이라는 의미다. 2023년 4월 건강과 친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 줍기, 친구 줍기, 줍줍'을 담은 '줍깅클럽'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2024년 '러닝클럽'을 거쳐 지금의 '01러닝클럽'으로 이어졌다. 누적 참여 인원은 약 800명에 이른다.

매년 두세 차례 열리며 기수당 3~4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러닝 경험 여부와 희망하는 달리기 속도에 따라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여러 그룹으로 나눠 이뤄진다. 한 기수마다 4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여의도공원에 모여 함께 뛰며 활력을 나누고 있다.

참가자들은 2.5㎞의 공원 코스를 두 바퀴 돌아, 총 5㎞를 함께 달린다.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강사가 함께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자세 등을 교육한다.

각 그룹에는 봉사자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며 속도를 조절하고 맞춰주기에 러닝이 처음인 참가자도 낙오 없이 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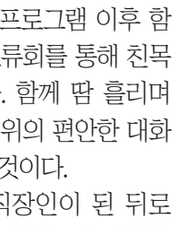
'01러닝클럽'의 매력은 달리기가 끝난 뒤에도 있다.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관계망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이후 함께 저녁을 먹는 교류회를 통해 친목을 이어가고 있다. 함께 땀 흘리며 쌓은 시간이 식탁 위의 편안한 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직장인이 된 뒤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뛸 수 있다"며 "한 번 성공하고 나니 다른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다른 사람과 함께 뛰며 친분을 나누게 돼 1인가구로서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참여자들과 함께 '프리런(Free Run)'이라는 정기 모임을 꾸려 매주 수요일 다시 모여 함께 달리는 인연을 잇고 있다.

'01러닝클럽'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달리는 우리의 동료가 된다. 기수가 끝나도 관계가 이어지는 점은 프로그램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연결을 통해 1인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



박상현
영등포구1인가구 지원센터 주임

대만불교 포교일기 ⑨ 불광산의 AI 혁신과 인간불교

AI, 검증·활용으로 불법 밝히다

〈佛法〉

불광산에서는 매년 음력 7월 22일 공승법회가 거행되고, 이어서 전 세계 불광산의 사부대중이 모이는 도중강습회(徒眾講習會)라는 연수교육이 있다. 올해 연수 기간 가장 뜨겁고 깊이 있게 다뤄진 주제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세상이 AI의 급격한 발전에 경탄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을 때, 불광산의 스님과 봉사자들은 AI를 불교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현대적 방편(方便)'으로 바라보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불교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기술의 수용은 결코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과거 〈팔만대장경〉을 새기던 목판인 쇄술이 경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20세기의 라디오와 인터넷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법의 무대가 되었듯, 오늘날의 AI 기술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불광산의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께서는 미래 불광산의 6대 발전 과제 중 하나를 정보화라고 하셨던 만큼 불광산이 추진하는 AI 혁신은 단순히 세속의 유행을 좇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간불교(人間佛教)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었다.

실제로 불광산은 성운 큰스님의 평생 유산인 〈성운대사전집〉 395권을 비롯해 서예, 음성, 포교 역사를 입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광산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불광AI(FoGuang AI)'의 기틀을 다졌다. 불교학의 정수인 〈불광대사전〉의 영문판 편찬 작업에도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방대한 교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나아가 포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응용이 이뤄졌다.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수행하는 불학원(佛學院) 수업과 글로벌 분원의 법회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통역 플랫폼이 활발히 쓰인다. 청중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스님의 법문이 각자의 언어로 실시간 자막 처리돼 전달된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에 '무국경 포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무 행정 현장에서는 스님들이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행사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며, 사찰 운영을 지능화하고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AI, 불교 미래 밝힐 새 방편으로 재조명

전집 DB화로 불광AI 구축, 편찬 혁신도

정통성·승가 윤리 중시, 정법 준수 검증

그러나 불광산이 AI를 도입하며 가장 경계하고 강조하는 바는 따로 있다. 바로 '속도'보다 중요한 '정통성'과 '승가의 윤리의식'이다. AI가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환각 현상을 막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다. 또한 AI로 만들어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며, 스님들에게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정어(正語)와 정법(正法)의 계율적 규범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그 결과 불광산의 엄격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즉시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내부 연구진 검증 → 출가 승단 검증 → 신도 조직 시범 운용 → 일반 대중 공개'라는 신중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교리의 무결성을 지켜낸다.

AI는 훌륭한 교화의 방편이지만, 인격적인 따뜻함과 마음의 참된 깨달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방편을 지혜롭게 다루되,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 내면의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산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AI 기술의 길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㉞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가을볕



보광사 만세루.

보광사 만세루 툇마루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하다. 절 마당을 거닐다 보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만세루 툇마루에 엉덩이를 붙이게 된다. 우리나라 절집을 통틀어서 가장 친화력이 높은 툇마루가 아닐까 싶다. 처마에 걸린 목어도 발길을 이끄는 데 단단히 한몫을 한다.

보광사 만세루의 목어는 목어계의 슈퍼스타다. 본래 유명한 목어였는데, 소설가 이외수의 글과 화가 정태련의 물고기 세밀화가 만난 책 〈하악하악〉의 표지 모델이 됨으로써 유명세가 더해졌다.

보광사 만세루는 '대방(大房)'으로도 일컬어진다. 1869년(고종 6) 세 번째로 중건돼 '염불당'으로 쓰였는데, 방과 부엌을 함께 갖춘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방문은 장식을 하지 않은 띠살문이다. 빛을 들이기 좋으면서도 튼튼한, 실용에 충실한 문이다. 만자살로 짠 문도 보이는데, 궁궐 상궁들의 시주로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왕실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염불을 했던 것이다.

보광사 만세루는 서쪽을 보며 앉은 대웅보전을 마주 보고 있다. 대기가 투명해지는 이 계절, 만세루 툇마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다정한 가을볕이 고인다.

손영자 작가



히말라야의 비명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가을 산사의 새벽은 청량하다.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아래 하늘은 붉고,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은 구슬처럼 빛난다. 이슬 떨어질까 고요히 걷는 걸음은 그 자체로 명상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도 이러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경고가 임계점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북극곰의 터전 상실이나 바다의 해수면 상승처럼 '인간과 무관한 생명의 비극'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당장 우리 목숨줄을 죄어오는 현실의 파고가 됐다.

지난 8월, 히말라야 렌데 콜라 계곡에서 일어난 네팔의 참사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만년설의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토석류는 시속 180㎞라는 경악할 속도로 계곡을 삼켰고, 순식간에 1400여 명의 사상자와 6000여 명의 실종자를 만들었다. 무차별적인 파괴 앞에서 인간의 문명이 가졌던 오만함의 결과와 절망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와 불살생(不殺生)을 설하며 일체중생의 목숨을 차별 없이 존중하라 하셨다. 이 가르침 아래 불교는 2500년 동안, 미물은 물론 삼라만상 초목까지 유정(有情) 무정(無情)을 아울러 일체 생명의 행복을 발원하는 평화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설산에서 청정함을 품고 소박한 삶을 지켜온 네팔 공동체가 정작 탄소를 내뿜은 거대

문명 오만함이 생존 위협하는 기후 위기로
공업 희생 네팔 참사, 근본적 업식 전환 뽓
삼독 베어내고 절제를 삶의 뼈대로 세워야

문명국가들보다 먼저 참혹한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짓고 있는 '공업(共業)'의 무서움을 뼈아프게 웅변한다.

인드라망처럼 촘촘히 얽힌 연기의 법계에서 더 이상의 피난처는 없다. 도심 빌딩 숲의 문명의 편리함과 소비가 지구 반대편 이웃의 삶터를 무너뜨리는 가해의 칼날이 됐으니, 인과(因果)의 그물망 속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네팔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한 세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해 불교계 전체 사부대중이 긴급 모금 및 현장 구조 활동에 나선 것은 아픔을 함께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도 지금의 위기를 건너는 일회성 다리일 뿐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대중의 근본적인 업식(業識)의 전환 없이는 앞으로 반복될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환경운동을 이어왔음에도 파국이 가속화된 현실을 냉철히 짚어야 한다. 텀블러를 챙기고 분리배출을 하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실천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멈출 수 없다.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절제된 삶은 수행자나 환경운동가뿐 아니라, 당장 내 아이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규범이자 계율(戒律)이 돼야 한다. 화려한 소비 문명을 지탱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베어내고, 절제를 삶의 뼈대로 세우는 대중적 삶의 전환이 절실하다.

히말라야 만년설이 무너지며 터져 나온 비명은 지구의 마지막 할(喝)이자, 호법신장의 서슬 퍼런 경책이다. 동시에 깨어있는 이에게는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참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참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이 표현은 필자가 오십여 년 사는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의 표어다.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한 곳이다. 이 식당의 점심은 2000원으로 집밥보다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식당 대기표 번호가 900번이 넘는 일도 있었다.

목욕탕, 각종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의왕시가 노인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의왕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런데 참으로 반가운 것은 이 복지관의 위탁 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악산 연주암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불교는 오랜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시(布施)와 복전(福田)의 사상을 동력으로 한 사회복지의 실천 내용은 초기 경전 〈니까야〉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붓다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틀에서 보는 시각에 익숙했던 필자는 초기 불교에 나타난 사회복지 운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상윳따 니까야〉 '인색함의 경'에 실린 게송을 상기해 본다.

"험한 벌판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들은/ 죽어 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니/ 이것은 영원한 법이라네."

자주 찾는 복지관이 조계종 위탁 기관
불교 복지 전통·자비 되살아나 반가워
종교 무관심 시대 사회복지 운동이 전법

이러한 전통은 대승 경전 곳곳에 이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만경〉이다. 이 경에는 승만부인이 세운 열 가지 서원 중 중생구제의 내용이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 노인복지, 고아의 아동복지, 재소자를 위한 교정복지, 병자를 위한 의료복지 등 현대의 복지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불교의 복지 역할은 매우 약화됐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해외 원조의 대행을 기독교가 독점하면서 전쟁 고아의 속출, 가정 파괴, 극심한 생활난 등 중생구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교 정화 등 내부 문제 해결에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불교의 복지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때 기독교계가 독점하다시피 한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전문 복지관 운영에 불교계가 대등한 위치로 참여하고 있다. 불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복지 단체도 늘고 있고, 해외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사례도 여럿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깨달음은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이었는데, 이제 자비가 형님이 되는 느낌을 주는 반가운 현상이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법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자비행일 것이다. 자비행의 구체적 방향이 바로 사회복지 운동이다. 오늘은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목욕하고, 점심 먹고, 바둑도 두면서 아름다운 인연을 즐겨야겠다.

글을 마무리하려니 평생을 사회복지 헌신으로 2024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성운 스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사회복지는 화두요, 염불이요, 수행입니다."

社 說

한국불교 새 백년을 열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했다. 제38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조계종은 새로운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새 집행부에 사부대중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지난 4년간 다져온 종단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이다. 진우 스님 역시 취임사에서 지난 4년을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안정은 현장 유지에 머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갈등을 줄이고 종단의 기본 질서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종단의 미래를 개

37대 안정 토대 위에 한국불교 새 도약을
공의·공감·공심으로 시대 변화에 응답해야

척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떤 소명을 다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취임사에서 제시된 방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선명상을 국민마음운동으로 확산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강화하며,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불교의 본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과 물질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마음을 돌보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새 집행부는 선명상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와 직장, 가정 등 생활 현장으로 수행문화를 확산할 때 불교의 지혜는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자비행은 말보다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취임법회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과 사회노동위원회 기금을 전달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승가의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출가부터 교육, 수행, 전법, 복지에 이르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의·공감·공심'은 종단 운영의 확고한 지향점이어야 한다. 주요 현안을 공론의 장에서 묻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함께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종단 혁신의 출발점이다.

제38대 집행부 앞에 놓인 과제는 총무원장이나 집행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중앙과 교구, 사찰과 신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생긴다. 특히 지난 4년의 안정이 소통과 종단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38대 집행부가 안정을 디딤돌 삼아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고, 세상의 아픔에 먼저 다가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새 집행부의 4년이 한국불교의 다음 백년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물과 불, 원만 순환하여 공용으로 물이 불어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해! 사랑해! 나의 친구들

모두 다 안전하고 모두 다 행복하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친구야'가사 중 -



지구사랑 작은 실천 - EM이 함께합니다.

네이버 쇼핑몰,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smallactions.co.kr 한마음선원EM지구사랑작은실천 @earthloveaction